

석사학위논문

제주 방언 조사 ‘- 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인 자

석사학위논문

제주 방언 조사 ‘- 광’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규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인 자

2004년 8월

제주 방언 조사 ‘- 광’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규 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강 인 자

강인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국 문 초 록〉

제주 방언 조사 ‘-광’의 관한 연구

강 인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규 일

방언은 언어의 역사를 반영한다. 따라서 방언 연구를 통해 국어의 문법에 관한 역사도 바르게 알 수 있고, 표준어와 방언간의 차이도 이해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장 중간에 쓰여 주로 명사와 결합하는 제주 방언 조사 ‘-광’이 표준어의 공동격 조사 ‘-와/과’와는 어떤 기능들과 대응되는지를 밝히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제주 방언 조사 ‘-광’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작성, 현지 답사를 통해 직접 채취해서 모은 자료들과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모은 자료들을 분석 연구하였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여러 문헌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제주 방언 조사 ‘-광’은 선행 성분에 따른 음운론적 제약이 없다. 이것은 표준어와 중세 국어에서 공동격 조사 ‘-와/과’가 선행 성분에 따라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공동격 조사 ‘-와/과’가 중세 국어시기에 명사 말음이 ‘-ㄹ-’인 경우와 모음 어간인 경우 ‘-와’, 자음 어간인 경우 ‘-과’와 결합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잘 지켜지던 ‘-와/과’의 혼용은 17세기 근대 국어시기부터 선행 명사가 ‘ㄹ’자음일 경우는 물론 선행 명사가 모음일 경우에도 ‘-과’가 쓰이게 되어, ‘-과’가 훨씬 많이 쓰이게 된다. 그 후 18세기 근대 국어시기에는 이 혼용이 더욱 극심하게 된다. 이 시기에 ‘-과’가 ‘-와’보다 더 우세하게 쓰이다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선행성분이 자음 어간이면 ‘-과’, 모음 어간이면 ‘-와’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제주 방언 조사 ‘-광’은 근대 국어시기에 우세하던 ‘-과’ 형태 하나로 굳어져서 ‘-과’에 첨사 ‘ㅇ’이 결합하여 ‘-광’이 형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봤다.

제주 방언 ‘-광’의 기능들을 분석해서 얻은 결과는 지금까지 밝혀진 격조사 기능 가운데 공동격 기능과 비교격 기능 외에 여격 기능과 처소격 기능이 더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

주 방언 조사 '-광'은 격조사 기능 외에도 접속사 기능, 보조사 기능, 나열화 기능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 방언의 조사 '-광'은 명사와 결합할 때 제주 방언의 다른 형태의 조사 '-혹곡', '-(이)영'과 같은 기능이 있음을 이들과의 교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표준어에서 공동격 조사 '-와/과'는 마지막 명사에 결합하면 비문이 되지만, 제주 방언 '-광'은 후행 명사와도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제주 방언 '-광'이 입말 언어인 점에서 문어보다는 구어체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 성분이 명사가 아닌 동사에 파생접미사 '-口(음)을 결합시켜 명사형을 만든 후 제주 방언 조사 '-광'을 결합시킨 기능도 [+ 나열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제주 방언 '-광'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주 방언 '-광'은 표준어의 공동격 접속사 '-와/과'와 기능이 많은 일치를 보였다. 이것은 제주 방언이 표준어와 형태는 틀리지만 국어의 한 하위 갈래임을 한 번 더 인식시켜 주었다.



※ 이 논문은 2004년 8월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임.

목 차

〈국문초록〉	i
1. 서 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방법	2
1.3. 선행 연구	4
2. 조사 ‘-광’의 형태와 기능	6
2.1. ‘-광’의 형태	6
2.1.1. ‘-광’의 음운론적 환경	6
2.1.2. ‘-광’에 ‘ㅇ’ 첨가형	9
2.2. ‘-광’의 기능	11
2.2.1. 격조사의 기능	11
2.2.1.1. 공동격 기능	11
2.2.1.2. 비교격 기능	14
2.2.1.3. 여격 기능	16
2.2.1.4. 처소격 기능	17
2.2.2. 접속 조사 기능	20
2.2.3. 보조사 기능	25
2.2.4. 나열화 기능	28
2.3. ‘-광’과 관련된 사항	29
2.3.1. 후행명사 + ‘-광’	29
2.3.2. 명사형 + ‘-광’	33
2.3.3. 기타 ‘-광’의 의미	39
3. 결 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6
〈부 록〉	48

1. 서 론

1.1 연구 목적

방언은 문어 요소보다는 구어적 성격이 강한 언어이다. 표준어가 방언간의 차이를 해소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 교육용 언어라면 방언은 이러한 인위적 표준화가 시도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언어이다. 방언은 표준어처럼 일정한 정서법이 제정되지도 않았고 글로 쓰여 널리 퍼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¹⁾.

언어는 쓰는 집단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어쩔 수 없이 크든 작든 얼마간의 분화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언어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을 수도 없고 단일할 수도 없다. 분화가 일어남으로써 그 나라의 표준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말이 곧 방언²⁾이다.

지역 사회의 역사성, 지리성, 풍속 따위의 복잡한 요소가 교착된다든지, 언어의 본질상 아무리 공통화가 촉진된다 하더라도 전국이 하나의 최소 언어권으로 묶어지기는 불가능하고, 다소간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남거나 새로이 생기기 마련이다.

방언은 사람이 나고 자라면서 듣고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우리들의 사고 작용과 감정의 움직임에 가장 밀착되어 있다. 그 만큼 방언은 살아 있는 언어로서 채굴 보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방언³⁾의 현실로서 방언과 표준어의 이중적 언어 생활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방언과 표준어의 대응을 알고 방언 체계를 터득하여, 방언의 생명과 그 가치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방언은 지역 사회의 현실에 밀착하고 있는 만큼, 그 자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 1) 방언의 본질이 입말인 까닭에 입말의 성격이 방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말할 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 변이, 군더더기처럼 보이는 반복 형태나 자기 수정, 그리고 말말이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유추 등이 방언 자료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2) 방언을 사투리, 시골말, 지역어, 지방어 등으로 부를 수도 있다. 언어의 下位 개념으로 방언으로 쓰고자 한다.
- 3) 한 언어 안에서의 言語分化는 지역의 다름에 의해서 생기는 지역 방언과 한 지역 안에서 직업, 나이, 성별 등의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방언이 있다. 여기서는 지역 방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가진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주민의 생활어로서 정서적이며, 같은 지역 안에서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방언은 국어사 연구에서도 살아 있는 자원 혹은 문헌으로서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이용도가 주목된다.

제주 방언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모어로 습득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뜻한다. 제주 방언은 무엇보다 다른 지방에 비해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고어(古語)가 많이 남아 있고⁴⁾ 그 변이 양상이 특이하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사회적인 영향과 교육의 발달로 점점 그 특질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방언 조사 중에서 표준어에는 없는 형태로 ‘-광’이 있다. 그리고 제주 방언의 조사 ‘-광’은 선행성분에 제약 없이⁵⁾ 형태가 일정하다.

이 논문은 제주 방언 조사 ‘-광’의 문장 중간에 쓰일 때⁶⁾ 기능을 주로 살피고자 한다. 또한 ‘-광’이 조사로서 표준어에서 어떤 기능과 대응되는지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제주 방언 조사 ‘-광’이 중세 국어 공동격 조사 ‘-와/과’와 비교해보면서 타지방의 방언과도 어떤 점이 같은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조사·채집한 자료들은 기술적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현대 말과 중세 국어 자료⁷⁾를 대상으로 다룬다. 조사 방법은 논자(論者)가 조사항목을 정해, 질문

4) 중세국어에 雙形語로서 ‘있다’와 ‘이시니(有)’ 그리고 ‘시다’와 ‘시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승녕(1955)이 일찍이 지적한 것도 제주 방언에 남아 있는 ‘이시니’와 ‘시니’가 共存하고 있음을 발견함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사용하던 모음 ‘ㄷ’이 있다. 당시 음가를 정확하게는 발음 못하지만 제주 방언 표기에서는 남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 강세 보조사 기능을 하던 ‘-ㄱ, -ㅇ, -ㅁ, 등이 화석화되어 쓰이고 있음 등이다.

5) 표준어 ‘-과’는 선행 성분이 모음/자음에 따라 ‘와/과’로 교체하는데 제주 방언 ‘-광’은 이러한 교체가 없다.

6) 제주 방언에 ‘-광’의 형태는 문간 중간에 조사로 쓰이는 것과 문말에서 의문 어미로 쓰이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문장 중간에 쓰여 조사로서 기능을 하는 ‘-광’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7) 중세 국어 문헌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칭을 쓰기로 한다.

訓 諺 : 훈민정음언해

龍 歌 : 용비어천가

釋 詳 : 석보상절

月 釋 : 월인석보

杜 諺 : 두시언해

內 訓 : 내훈

朴通事 : 번역박통사

지를 작성해서 현지 답사를 통해 직접 채취해서 모은 자료들과 인터넷 활용을 통해 모은 자료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문헌- 설화, 민속, 무가, 전설, 민요도 참고로 했다⁸⁾. 그리고 제보자(informants)들의 선정 기준은 어떤 틀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 층과 3대 이상 제주도 지역에서 거주해온 제보자 중심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방언은 언중(言衆)들이 쓰는 말에 근거해야 하므로 이외에도 교육을 받고 자란 30~40대 층의 더 넓은 범위로 조사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장을 표준어로 만들어 제주 방언을 대입해 보는 방법도 사용했다. 또는 직접 질문을 유도하는 방식도 택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나눌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특질을 찾아내는데 意義가 있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단일 방언권으로 설정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1장은 제주 방언 '-광'의 형태를 살펴봤다. 표준어의 공동격 조사 '-와/과'는 선행 성분이 모음 어간이면 '-와', 자음 어간이면 '-과'가 쓰이는데, 제주 방언 조사 '-광'은 음운론적 환경과 관계없이 '-광' 하나로 실현된다. 제주 방언 조사 '-광'의 형태를 중세 국어와 연관하여 추론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제주 방언 '-광'의 기능에서는 우선 격조사로서의 기능을 살펴봤다. 제주 방언 '-광'이 선행 연구에서 공동격 조사, 비교격 조사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

- 翻 小 : 번역소학
 - 三 綱 : 삼강행실도
 - 老 諺 : 노인대언해
 - 捷 新 : 첩해신어
 - 隣 語 : 인어대방
 - 捷新重 : 중간첩해신어
 - 國 小 : 국민소학독본
 - 尋 小 : 신정심상소학
 - 楞 嚴 : 능엄경언해
- 8)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 1」, 제주문화사.
 김영삼(1958), 「제주도 민요집」, 중앙문화사.
 김용해(1995), 「제주도 사투리」, 도서출판 양지원.
 이운금(1965), 「제주도 사투리」, 박문출판사.
 진성기(2002),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 디딤돌.
 제주속담사전, 제주도.
 '제주도 사투리 경진대회' 자료집
 '제주의 마을' 시리즈 1권~16권, 도서출판 반석.

다. 이 연구에서 논자는 이제까지 언급이 없었던 제주 방언 ‘-광’이 가지는 여격 조사, 처소격 조사 기능을 한다는 것을 추가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표준어에도 공동격 조사와 형태는 같지만 그 기능이 틀린 ‘-와/과’의 기능인 접속조사가 있다. 제주 방언 ‘-광’도 공동격 조사와 구별되어서 쓰이는 접속조사 기능이 있다. 제주 방언 ‘-광’이 접속 조사의 기능을 구별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 방언 ‘-광’의 보조사 기능과 제주 방언 ‘-광’의 갖는 나열화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제주 방언의 또 다른 형태의 ‘-흐곡’, ‘-(이)영’과의 교체를 통하여 제주 방언 조사 ‘-광’이 갖는 기능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제주 방언 조사 ‘-광’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선 표준어 ‘-와/과’에서는 후행 명사가 공동격 ‘-와/과’가 결합되면 비문이 되는데, 제주 방언 조사 ‘-광’은 후행하는 성분과도 ‘아방광 어명광 사이가 좋수다’와 같이 결합을 한다. 이와 같은 문장들을 살펴보고, 다른 지방 방언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과 아울러 중세 국어에서 공동격 조사 ‘-와/과’의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 방언 조사 ‘-광’이 명사가 아닌 동사에 명사 파생접미사 ‘-口(음)’과 결합하여 파생명사와 결합할 때는 어떤 기능을 갖는 지까지 아울러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루지 못한 제주 방언 ‘-광’의 갖는 그 밖의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표기는 한글 글자로 쓰는 방법을 택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음운 표기도 병행할 예정이다. 표기상의 기호는 다른 글에서 인용되는 것을 따르기로 하였다. 다만 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호는 본문에서 밝히기로 한다.

1.3. 선행 연구

제주 방언에서 ‘어휘’ 못지 않게 조사와 어미의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그 단어의 통사적인 성질이요 곧 기능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연구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조사 ‘-광’에 관해서 이송녕(1985)과 현평효(1985)가 공동격 조사, 비교격 조사로, 강근보(1979)가 비교격 조사로 언급했고, 강정희(1988)가 ‘-광’을 공동격, 비교격으로 봤을 때 의미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광’을 제주 방

언의 대표적인 등위 연결 접미사로 보고 있다. 또한 정승철(1999)은 ‘-광’은 공동격 조사이지만, ‘-광’이 ‘-(이)영’보다 주어를 강하게 견인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⁹⁾

가. 밥광 떡광 어느게 조니?(밥과 떡중에 어느 것이 좋니?)

그 사름광 ㄴ트냐?(그 사람과 같더냐?)

나. 아방광 어멍광 싸웁수다.(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계십니다.)

다. 그 과부가 이밤광 저밤새에 간 만난 왁저.(그 과부가 이 밤과 저 밤 사이에 가서 만나고 온다)

라. 나광 훈디 아이 살다?(나하고 함께 아니 살겠냐?)

야의광 가의는 님앗저.(이 아이와 그 아이는 님았다.)

마. 난 국어광 수학을 좋아웁수다.(나는 국어와 수학을 좋아합니다.)

위의 (가)는 이승녕이 공동격 조사로 (나)는 강근보가 비교격 조사로 (라)는 현평효가 공동격 조사와 비교격 조사로 분류한 것이다. (다)는 강정희가 공동격 조사와 비교격 조사 어느 것도 될 수 없다며, 단지 ‘-광’은 ‘이 밤’과 ‘저 밤’이라는 두 연결체를 단순히 연결시켜주고 있을 뿐이다라는 관점을 취한다. (마)는 정승철이 ‘-광’이 결합된 성분은 ‘국어’가 ‘-광’이 결합하지 않은 성분 ‘수학’보다 주어에 견인시키는 힘이 강하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주 방언 조사 ‘-광’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제주 방언 조사 ‘-광’은 제주 방언 연구 논의에서 한 두 줄로 언급되어 너무 협소하게 이루어진 점이 아쉬웠다. 또한 제주 방언 조사 ‘-광’의 형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 방언은 아직도 고어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타지방 방언에 연구에 비해서는 많은 성과도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방언 연구가 더 절실하다.

9) 이승녕(1957),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연세대학연구소.

——(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이우출판사.

강근보(1977), “제주도 방언의 접속사 연구”, 『논문집』 9, 제주대학교.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정승철(1998), “제주방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p. 960 참조.

2. 조사 ‘-광’의 형태와 기능

국어의 조사는 주로 자립 형태소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접속 조사로 크게 나뉜다. 격조사는 명사로 하여금 문장 속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보조사는 여러 격에 두루 사용되며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일을 한다.

조사가 문장 속의 어떤 다른 단어와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격(case)이라 한다. 국어의 격은 대체로 격조사에 의해 표현된다.¹⁰⁾ 격조사에는 주격, 관형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호격, 서술격 조사가 있다.

여기서는 격조사 중에서도 부사격 조사를 중심으로 ‘-광’의 형태·통사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¹¹⁾ 또한 ‘-와/과’와 형태는 같지만 다른 기능을 하는 접속 조사 기능을 살펴보고 그 외 다른 기능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 방언 ‘-광’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교량적 구실을 하는지도 알아보겠다.



2.1. ‘-광’의 형태

2.1.1. ‘-광’의 음운론적 환경

- (1) 가. 집줄 졸로게 놓는 사람광 사돈 말라.(지붕 줄 짧게 놓는 사람과는 사돈 하지 말라)
나. 바, ◦사광 애기 어명은 ㄱ물수록 좋다.(장님과 아기 어머니는 날이 좋아야 좋다.)

- 10) 가. 누나 어디 갔니?
나. 오늘은 무슨 책 읽었니?

‘대체로’라고 말하는 것은 위 예에서와 같이 격조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나’와 ‘책’에는 격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 가. 누나가 어디 갔니?
나.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니?
11) 제주 방언 ‘-광’이 어미로 쓰일 때와 조사로 쓰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조사 ‘-광’의 형태와 기능 면을 다루었다.

- 다. 니광 나광 ㄴ찌허게.(너와 나와 같이 하자)
- 라. 이빨이 옥쇠된 사름광은 벗도 흐지 말라.(이빨이 구부러진 사람과는 친구
조차 하지 말라)
- 마. 솔두경광 시린 주곡 말으곡 흐민 소도리난다.(솔두경과 시루는 주고 받고
하면은 소문이 난다.)
- 바. 시숫물을 놈광 곶이 쓰민 싸움한다.(세숫물을 남과 같이 사용하면 싸울
수 있다.)

(가)~(바)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광’은 선행음(모음과 자음)에 따른 제약이 없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은 음운론적 환경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특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다른 방언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 (2) 가. 금년에는 조이과 감자도 대풍이음세.(금년에는 조와 감자도 대풍입니다).[동북]
- 나. 사람이 사는 풍석이사 거기와 여기가 같습테.(사람이 사는 풍속이야 거기와 여기가 같습니다.)[동북]
- 다. 삶이는 고애가 한가지이까(살랭이는 고양이와 한가지니까)[동북]
- 라. 세멘가 물개가 낭기 다 있는데(시멘트와 모래와 나무가 다 있는데)[동북]
- 마. 떡과 감씨과 바꾸자주 했다.(떡과 감씨를 바꾸자고 했다.)[평북]

(2)에서 ‘-과’는 앞성분에 제약 없이 항상 ‘-과’로 쓰이고 있다. 이 점은 제주 방언의 ‘-광’이 음운적 실현과 같다. 이 형태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등 강원도 북부 지역과 경북 울진 그리고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북방언과 동북 방언에서는 ‘-과’가 ‘가’로 단모음화 되어 쓰이기도 한다.

제주 방언 ‘-광’이 음운론적인 제약 없이 형태가 일정하게 쓰이는 현상을 추정해보자. 중세국어의 공동격 조사는 현대국어와 달리 선행 명사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날 경우는 ‘-과’로 ‘ㄹ’과 모음으로 끝날 경우는 ‘-와’와 결합하였다 그러나 근대국

어에 와서 이러한 형태들이 서로 혼용되어 쓰이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와/과’의 혼용은 선행 명사가 ‘ㄹ’ 자음일 경우는 물론, 선행 명사가 모음일 경우에도 ‘-과’가 쓰였다. 이처럼 ‘-과’가 훨씬 많이 쓰이게 된다. 그 후 18세기에는 이 혼용이 더욱 극심하게 된다. 아래의 17세기, 18세기의 예를 볼 때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3) 가. 每日에 漢人 선비들과 혼터서 글비호니 (노언, 상5b)

풍뉴과 어우러더 즐거오미 ㄱ업서 (첩신, 6:9a)

나. 날과 혼 洞內의 인스오매 (인어, 1:12b)

뉴와 어오러져 즐거움이 ㄱ업서 (첩신-중, 6:11a)

다. 그 脂肪質이 體中에 드러 血液과 混合하야 因하야 (국소, 13b, 14a)

兒孩가 혼 벗과 同行하야 還家홀시 (심소, 1:5a)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혼용은 없어지고, 선행명사가 모음일 경우는 ‘-와’가 선행 명사가 자음일 경우는 ‘-과’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된다.

제주 방언인 조사 ‘-광’인 경우에는 근대 국어시기에 ‘-와’와 ‘-과’의 혼용에서 ‘-과’ 형태 하나로 화석화되어 ‘-과’에 ‘ㅇ’이 첨가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승녕(1985:37-38)이 제주 방언에서 비교격, 공동격 ‘-와, -과’에 ‘-왕, -광’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다.

(4) 가. 히마라야왕 漢拏山광 ㄱ트땡 ㄱ르난 막 우수왕 죽어지케라. (히마라야와 漢拏山과 같다고 말하니 참 우수어서 죽겠구나.)

나. 계기(肉)왕 배(梨)왕 어느거 머쿠짱? (고기와 배와 어느 것을 먹겠습니까?)

이승녕은 ‘-왕’이 사용위치에 ‘-광’을 사용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했다. 이 글이 1956년¹²⁾에 탈고 된 것으로 볼 때 제주 방언에서도 ‘-왕’과 ‘-광’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2) 이승녕(1985)이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는 머리말에서 1956년 7월 22일 脫稿 1957년 12월刊의 「東方學志」 No.3 pp. 39-163에서 掲載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보면 모음아래서 ‘-왕’을 자음아래에서는 ‘-광’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ㄹ’다음에 ‘-왕’이 결합된 예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

2.1.2. ‘-과’에 ‘ㅇ’ 첨가형

‘-광’이 문장의 중간에 쓰이든 문말에 쓰이든 그 형태는 ‘-과’에 ‘ㅇ’이 첨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국어의 強勢를 표시하는 보조사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세국어에서 강세를 표시하는 보조사¹³⁾로는 ‘-샤’, 그리고 행위의 반복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기’, ‘-ㅇ’, ‘-ㅁ’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샤’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조사이다.

다음 예 (1), (2), (3)을 보자.

(1) 가. 가렌 허난 가기사 가켜.(가라고 하니까 가기야 가쨌다.)

나. 헝기사 느 말이 백 번 천 번 맞추.(하기야 너의 말이 백 번 천 번 맞다.)

다. 경혜사 되크라.(그렇게 해야 되겠니)

라. 비음직 허다 마당에 보리 건너사 되켜.(비 올것 같다 마당에 보리 건너 들여야 되쨌다.)

마. 아멩헤도 가이한테 꾸돈 줘사 되켜.(아무래도 그 아이한테 빌린 돈 갚아야 되쨌다.)

(2) 가. 경허곡 말곡(그렇게 하고 말고)

나. 보곡 말곡(보고 말고)

다. 오곡 가곡(오고 가고)

라. 술망 먹곡(삼아서 먹고)

마. 땀곡 말곡(땀고 말고)

(3) 가. 갑다?(가느냐?)

나. 먹엄다?(먹느냐?)

다. 잠다?(자느냐?)

라. 험다?(하느냐?)

13) 중세국어의 강세 보조사로는 그 외 ‘-긔/긔’, ‘-븓/븓’, ‘-곰/옴’ 등이 더 있다.

마. 불립다?(부르느냐?)

(4) 가. 나영 너영(너하고 나하고)

나. 그냥 저냥(그렇게 이렇게)

다. 하영(똥이)

라. 험명 말명(하며 말며)

마. 아방 어멍 가시어멍 가시아방

라. 먹으멍 일하멍(먹으며 일하며)

마. 고장(꽃)

(1)은 중세국어의 ‘慈悲 힝더글 햏야샤 햏릴씨(釋詳六, 2)’와 같이 ‘-샤’가 강세의 보조사로 쓰였다. 이것은 현대국어의 ‘야’로 발달되었다. 그러나 제주 방언에서 이 ‘-샤’가 고형으로 남아 ‘-사’로 쓰인 예이다.

또한 중세국어의 보조사로 강세와 더불어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는 ‘-기’, ‘-오’, ‘-□14’ 등이 쓰였는데 위의 (2), (3), (4)도 이러한 잔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는 중세국어의 ‘다음 업슨 긴 ㄱㄹㅁㅂ 니썸 니어 오눏다(杜諺 10:35)’와 같이 반복을 나타내는 ‘-□’과 연관시킬 수 있다. 그리고 (3)과 (4)의 ‘-기’와 ‘-오’는 중세에서 쓰이던 것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제주 방언에서 중세국어에서의 강조와 반복의 의미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 보편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제주 방언 ‘-광’도 원래 ‘-과’였던 것이 ‘ㅇ’이 첨가된 형태로 쓰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강세의 보조사로 쓰이던 ‘ㅇ’이 지금은 화석화되어 제주 방언에서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類推¹⁵⁾해 볼 수 있다.

14) 다음은 제주 방언에서 ‘-□-’을 보는 견해다.

· 이승녕(1985:65)은 ‘현재에서 미래의 방향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 홍종림(1993:108)도 진행상으로 보고 있다.

· 강정희(1987:528)는 근대국어의 동명사 어미의 잔존형이라고 보고 있다.

15)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類型을 본받아서 어떤 문법형태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변화를 입는 것을 말한다.

(예) 햏다(爲); 햏다 + ㅇ > 햏당, 햏여(爲); 햏여 + ㅇ > 햏영, 오다(來); 오 + 라 + ㅇ > 오랑, 가다(去); 가 + 아 + ㅇ > 강

(예)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유추가 가능하다.

햏다 + ㅇ > 햏당 : 과 + X > 광

2.2. '-광'의 기능

2.2.1. 격조사의 기능

국어의 격은 대체로 격조사에 의해 표현된다. 격조사에는 주격, 관형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호격, 서술격 조사가 있다.

여기서는 격조사 중에서도 이미 밝혀진 부사격 조사인 공동격 조사, 비교격 조사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제주 방언 조사 '-광'이 여격 능과 처소격 기능을 더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 방언 '-광'을 다른 형태의 '-(이)영'과의 교체를 통해 같은 기능을 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2.1.1. 공동격 기능

공동격은 명사 성분이나 명사구·절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며, 특수 조사와의 결합관계도 개방적이다. 현대국어에서 공동격 조사는 '-와/과'¹⁶⁾와 '-하고'에 의해 표기된다. 표준어 '-와/과'는 문어체에 '-하고'는 구어체에 더 자연스럽다.¹⁷⁾ 제주 방언의 조사 '-광'도 공동격 조사로서 기능을 한다.

(5) 가. 나광 고찌 가게.(나와 함께 가자.)

나. 나광 가젠?(나와 갈래?)

다. 그 아즈망은 서방광 장에 갔저.(그 아줌마는 남편과 시장에 갔다.)

라. 그 집의 할망광 메뉴리가 훈디 살암저.(그 집에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다.)

마. 이 식개떡 할망광 훈디 먹읍서.(이 제사떡 할머니와 함께 드세요.)

16) 김완진(1970)은 'A와 B는 같다.', '북남이는 칼과 연필을 맞바꾸었다.' 구접속으로 보고 있다. 이익섭·입홍빈(1983)은 '창수와 영수는 모범생들이다.'를 문접속으로 보고 있다. '눈과 숨은 희다.'(김완진, 1970). 그러나 남기심(「동방학지」 66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0)은 「NP1이 NP2가 ...V」의 「NP와」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칭 용언의 경우는 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수의적으로 요구되는 일반 대칭 용언이 경우에는 부사어의 자격을 가진다.

17) 가. 나와 함께 가자.

나. 나하고 함께 갈래?

(5)는 대칭동사와 형용사에서 공동격 ‘와 /과’로 쓰여 에서 제주 방언 ‘-광’이 표준어의 ‘-와/과’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 조사 ‘-광’은 동반의 의미와 공동의 의미로 쓰여 공동격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가)의 제주 방언은 ‘나광 고찌 가게’는 ‘나하고 함께 가자’와 처럼 표준어 구어체에 더 잘 어울리는 ‘-하고’로 대응되어도 자연스럽다. 나머지 (5나)~(5마)도 마찬가지다.

중세 국어에서도 공동격은 대체로 ‘...와 더불어, ...와 함께, 서로’ 등의 의미를 가지는 공동격 조사로 ‘-과’가 쓰였다. 다만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말음이 ‘ㄹ’일 경우와 모음일 경우 ‘-와’과 그리고 자음인 경우는 ‘-과’가 통합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6)과 (7)은 중세국어의 공동격 조사의 쓰임이다.

(6) 가. 深山에 드러 果實와 물와 좌시고(月釋1, 5)

나. 입시울와 혀와 니왜 다 도효며(釋詳19, 7)

(7) 가. 입과 눈과(龍歌 88)

나. 龍과 鬼神과 위흐야 說法흐더시다(釋詳六, 1)

(6)과 (7)은 중세국어에서 명사 말음의 따라 (6)은 공동격 조사 ‘-와’의 쓰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7)은 ‘-과’의 쓰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 방언에 공동격 조사로 쓰이는 것이 다른 형태로 ‘-(이)영’이 있다.¹⁸⁾

제주 방언 ‘-광’이 공동격 조사로 쓰인 (5)에다 제주 방언 ‘-(이)영’을 대신 넣어 보면 (8)과 같이 문장이 된다.

(8) 가. 나영 고찌 가게.(나와 함께 가자.)

나. 나광 가젠?(나와 갈래?)

다. 그 아즈망은 서방이영 장에 갔저.(그 아줌마는 남편과 시장에 갔다.)

18) 이승녕(1957),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연세대학연구소.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이우출판사.

라. 그 집의 할망이영 메누리가 혼디 살암저.(그 집에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다.)

마. 이 식개떡 할망이영 혼디 먹읍서.(이 제사떡 할머니와 함께 드세요.)

(8)에서 보면 '-광'과 '-(이)영'은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정승철(1999:960)은 제주 방언 '-광'이 '-이영'보다 선행성분을 주어에 견인시키는 힘이 강한 공동격 조사라 한다.¹⁹⁾

(9) 가. 난 국어영 수학을 좋아햐슴다.

나. 난 국어광 수학을 좋아햐슴다.

위 문장은 둘 다 '국어와 수학을 좋아합니다'라는 표준에 대응되는 말이다. (9)에서 정승철(1999:960)은 (9나)를 자연스럽게 지 않은 문장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은 (10)에서와 같이 제주 방언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10) 가. 깡이광 보말도 집은 싣나.(계와 고동도 집은 있다.)

나. 송스다리광 몽니다린 우던으로 간다.(송사쟁이와 몽니²⁰⁾쟁이는 종내기로 간다)

다. 서방광 각썬 갈라사민 놈놈이다.(남편과 아내는 헤어지면 남남이다.)

라. 물왓광 빌레왓은 작제 엇나.(물밭과 들밭은 시세 없다.)

마. 니광 쉬랴.(이와 서캐.)

(10가)에서 집이 있다는 서술어를 이끄는 성분은 '깡이(계)'와 '보말(고동)'이다. 여기서 '-광'이 연결된 앞 성분만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뒤 성분까지 꼭 같이 이어주고 있다. (10나)에서도 '송사쟁이'와 '몽니쟁이'를 똑 같이 우던²¹⁾으로 간다는 말을 하고 있다. (10다)역시 '서방'과 '각시'를 같은 평행선상에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라)에서도 밭값 시세없는 것은 '물왓'과 '빌레왓'이 똑같다는 것을

19) 정승철(1998), "제주방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p. 960 참조.

20) '몽니'는 심술과 고집을 합쳐놓은 정도라 할 수 있다.

21) 우던 : 유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라)는 제주 속담에서 바늘 가는데 실은 당연히 따라간다는 것을 빗댄 때 쓰는 말이다. 글자 그대로 '니와 쉬'는 똑 같다는 표현으로 '니(이)가 있으면 쉬(서케)가 있고, 쉬(서케)가 있으면 니(이)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과 '-(이)영'은 공동격으로 쓰일 때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1.2. 비교격 기능

표준어에 공동격 조사의 '-와/과'와 '-하고', '보다' 등이 비교격으로 쓰인다. 국어에서 비교의 전형적인 구문이라면 'A보다 B가 더(덜)...', '과' 같은 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에 제주 방언 '-광'도 비교격 조사 기능을 한다.

(11) 가. 마라도 모기광 용수 모긴 사돈 한다.(마라도 모기와 용수 모기는 사돈을 한다.)

나. 여저광 상대험보단 그 좋은 구들, 깨끗헌 이부자리에 여저 안양 뉘 보는 걸 재밌 붙영 많이 간다.(여자와 상대하기보다는 그 좋은 구들, 깨끗한 이부자리에 여자안고 누워 보는 것을 재미를 붙여서 많이 간다.)

다. 성광 아시광 지레가 킷등허다.(형과 동생이 키가 같다.)

라. 셋것광 막둥이는 허는 짓도 어떻사 고튼지.(둘째 아들(딸)과 막내는 하는 행동도 왜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11가)는 모기를 물렸을 때 독함을 비교한 것이고, (11나)는 A보다 B가 더 좋다는 전형적인 비교 문이다. (11다)는 형과 동생의 키를 비교하는 문장이고, (11라)는 둘째와 막내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 방언 조사 '-광'은 비교격 조사로서도 빈번히 쓰인다.

표준어에서 '보다'가 사용되는 비교 구문에서는 보조사 '-는'이 덧붙는 수가 많다. 비교란 본질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항목을 대조하는 절차를 갖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는'이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2)은 '-광 + 보조사'가 쓰여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12) 가. 너광은 내가 낮어야.(너보다는 내가 낮다.)

나. 가이광은 비교도 안 되게 크주.(그 아이와는 비교도 안되게 크다.)

다. 아방광은 고찌 풀양사 되어.(아버지와는 같이 비교해서 안 된다.)

(12)에서는 제주 방언 '-광 + -은'이 형태로 '-보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즉 (12가)는 '너보다는' (12나)는 '그 아이보다는' 그리고 (12다)에서는 아버지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함을 비교하고 있다.

다음은 제주 방언 조사 '-광'이 '-와/과'의 쓰임으로도 쓰이지만, (11)과 같이 '-하고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면서 역시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13) 가. 도고 높은 집광 사돈 말라.(문턱 높은 집과는/하고는 사돈 말라.)

나. 집줄 졸르게 놓는 사름광 사돈 말라.(지붕에 줄 짧게 놓는 사람과/하고는 사돈 말라.)

(11), (12), (13)에서 나타난 것 같이 제주 방언 조사 '-광'은 비교를 나타낼 때에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비교격 조사로 '-와/과'가 쓰였다. 물론 형태와 선행 말음 제약은 공동격 조사 '-와/과'와 같다. (14)는 중세 국어에서 비교격 조사로 '-와/과'가 쓰인 몇 가지 예다.

(14) 가. 하늘과 짜히 크고(杜初21, 2)

나. 나디 바티셔 남과 ㄴ틀씩(釋詳六, 19)

다. 楊雄의 집과 가줄비느니(杜初7, 1)

앞에서 공동격 조사가 交互性을 갖는 대칭동사일 경우는 '와 함께'나 '서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공동격 조사였지만, (14)는 서술어가 비교의 의미를 갖는 비교성의 서술어인 경우는 비교격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1.3. 여격 기능

표준어에서 여격조사로는 ‘-에/에게’, ‘-한테’, ‘-더러’ 등이다. ‘-에’는 무정 명사 뒤에 결합되고 ‘-에게’는 유정 명사 뒤에 쓰이는데, 존칭에서는 ‘-께’가 사용되며, ‘-한테’와 ‘-더러’는 구어체에서 주로 쓰인다. 제주방언에서 여격 기능을 하는 조사로는 ‘-에/에서’, ‘-한테²²⁾(헌티/테, 한티), -신디, 등이 쓰이고 있으며, ‘-광’역시 이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 (15)의 문장은 제주 방언에서 흔히 쓰는 말이다.

- (15) 가. 어명광 경허민 되어.(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면 되나.)
나. 동생광 경허민 되나.(동생에게 그렇게 하면 되나.)
다. 어명이 먼저 알아가지고 아들광 전달을 허여 불엇저(어머니가 먼저 알아서 아들에게 전달하였다.)
라. 삼촌광 의논협주.(삼촌에게 의논해봅시다.)
마. 그 집 아들은 아방광 대들엇젠 험저.(그 집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고 한다.)

(15)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6) 가. 어명(에게 / 한티 / 신디) 그렇게 하면 되나.
나. 동생(한테 / 에게 / 신디) 그렇게 하면 되나.
다. 어명이 먼저 알아가지고 아들(한테/ 신디 /에게) 전달을 하여 버렸다.
라. 삼촌(한테 / 에게 / 신디) 의논해 봅시다.
마. 그 집 아들은 아버지(한테 / 에게 / 신디) 대들었다고 한다.

(15)에서 ‘-광’은 표준어 ‘에게/한테’(안테)[+ 유정명사]의 자질 명사 다음에 붙어 여격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광’이 하나의 형태로서 ‘존칭과 비존칭’을 같이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15가), (15라), (15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22) ‘-한테’는 모든 방언에 거의 나타난다.

(17) 가. 어머니께 그렇게 하면 되나.

나. 삼촌께 의논해봅시다.

마. 그 집 아들은 아버지께 대들었다고 한다.

(17가)에서 보이는 것은 화자가 대상(어머니)보다는 낮고 청자보다 우위에 있을 경우는 '-광'이 '-께'를 대신함을 보인다. (16나)와 (16라)에서도 '-께'라는 존칭 접미사가 붙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이 [+유정명사]와 결합 할 때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존칭 접미사 '-께'의 의미가 나타난다.

2.2.1.4. 처소격 기능

제주 방언인 '-광'이 [-유정명사]와 결합하면 표준어의 '-에'와 '-에서'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대체로 격조사는 생략한다 하더라도 그 문장의 주어나 목적격으로 쓰이는 데 무리가 없지만, 처격 조사는 어떤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격 조사가 생략되면 그 문장이나 말은 適格性을 잃게 된다.

다음은 [-유정명사]와 결합하여 제주 방언 조사 '-광'이 '-에서'를 나타내고 있다.

(18) 가. 학교는 집광 머우광?(학교는 집에서(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나. 제주광 서울은 너무 멀다.(제주에서 서울은 너무 멀리 있다.)

다. 집광 바당광 머냐?(집에서 바다까지는 (거리가)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18)에서 보면 '-광'은 표준어 '에서'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정명사]와 결합하여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18가)는 '학교와 집사이의 거리' (18나)는 '제주와 서울사이의 거리' (18다)는 '집과 바다까지의 거리'의 구체적인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18)문장의 '-광'을 생략하면 (19)과 같다.

(19) 가. ?학교는 집 \emptyset 머우광?(학교는 집 \emptyset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나. ?제주 \emptyset 서울은 너무 멀다.(제주 \emptyset 서울은 너무 멀리 있다.)

다. ?집 \emptyset 바당광 머냐?(집 \emptyset 바다까지는 (거리가)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19)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 방언 ‘-광’을 생략하면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다. 이것은 제주 방언 ‘-광’이 처소격 조사로 쓰임을 보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유정명사]와 결합한 ‘-광’을 살펴보고자 한다.

(20) 가. 어멍광 멀어전?

나. 시어멍광 무사 멀어전?

(20)은 (20가)와 (20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21) 가. ① ?어머니(현재 있는 곳에서)(에게서 / 와) 거리가(대화 상대자) 얼마나 되느냐?

② 어머니(*에게서 / 와) 사이가 좋지 않느냐?

나. ① ?시어머니(에게서 / 와)의 거리가 무슨 이유로 멀리 떨어졌느냐?

② 시어머니(*에게서 / 와)는 어떤 이유로 사이가 멀어졌느냐?

그러나 이 ‘-광’이 [+유정명사]와 결합했을 때는 구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 되든지 비문을 보인다. (21)에서 보면 (21가)의 ①과 (21나)의 ①은 비문이 아니지만 잘 쓰이지는 않는 좀 어색한 문장이다. 또한 (21가)의 ②와 (21나)의 ②는 구체적인 거리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추상적인 거리인 사람관계인 ‘사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에’의 대응되는 예다.

(22) 가. 그 삼춘은 밥을 고추장(광 / 에) 버므릿저.(그 삼춘은 밥을 고추장에 비볐다.)

나. 그 소(광 / 에) 그 송아지냐?(그 소에 그 송아지냐?)

다. 니가 가진 돈(광 / 에) 이 돈을 더하민 집으로 가지키여.(너가 가진 돈에 이 돈을 합하면 집으로 가지겠다.)

라. 그것(광 / 에) 합쳐서 받을 사켜.(그것에 합쳐서 받을 사겠다.)

- 마. 고기는 집 간장(광 / 에) 고찌 먹어야 흐주.(고기는 집에서 만든 간장에 곁들여 먹어야 한다.)
- 바. 밋슬 강왕 보난 시킴한 내(煙)가 정재광 구들광 ㄱ득해서라.(놀러 갔다와서 보니까 검은 연기가 부엌과 방에 가득 차 있었다.)

(22가)는 도구격을 (22나)는 출발을 그리고 (22다, 라, 마, 바)는 부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23) 가. 그 아주망은 밥을 고추장광 버므릿저.(그 아줌마는 밥을 고추장에 비볐다.)
- 나. 그 아주망은 밥광 고추장을 버므릿저.(그 아줌마는 밥에 고추장을 비볐다.)
- 다. 계역을 물광 타먹엇저.(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먹었다.)
- 라. 계역광 물을 타먹엇저.(미숫가루에 물을 타서 먹었다.)

(23)은 제주 방언 ‘-광’이 같은 서술어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의미가 다르다. (23가)와 (23다)는 ‘-에’에 대응되면서 ‘도구’를 (23나)와 (23라)는 ‘장소(부가)’의 뜻이다. 즉, 같은 동사라도 ‘NP-광’의 NP의 종류에 따라 ‘-광’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4) 가. 자인 지레 커부난 문지방광 박앗저.(저 아이는 키가 크기 때문에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혔다.)
- 나. 아신 지레가 죽아부난 문지방광 박을 일이 엇저.(동생은 키가 작기 때문에 문지방에 머리 박을 일이 없다.)
- 다. 발이 신발광 안 맞암저.(발이 신발에 안 맞는다.)

(24)의 경우에는 제주 방언 ‘-광’의 ‘-에’에 대응되면서 ‘접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 유형의 동사로는 ‘다가붙다, 부딪다, 닿다, 마주서다, 접촉되다, 접하다 ...’ 따위가 있다.

- (25) 가. 그 일 끝난 게 아마도 오후 세시광 네시 새여.(그 일 끝난 것이 아마도 오후 3시에서 4시쯤이다.)
- 나. 보릿고개 당시광 비하민 지금은 얼마나 좋은 때라.(보리 고개 당시(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은 때냐.)
- 다. 태풍이 오늘 저녁 무렵광 널 아척꼬진 불켄헤라.(태풍이 오늘 저녁 무렵에서 내일 아침까지는 불췌다고 한다.)

(25)은 제주 방언 ‘-광’이 ‘-에/에서’와 대응되면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2.2.2. 접속 조사 기능

우리 국어에 ‘와/과’는 공동격 조사와 그 형태가 일치하지만, 그 기능이 이들과 구별되는 ‘와/과’가 있다. 이것은 동반이나 ‘서로’ 등의 의미가 아니라 둘 또는 그 이상의 명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와/과’로서 이를 흔히 공동격 조사와 구별하여 접속 조사(또는 접속격 조사)라 부른다. 이 표준어 ‘와/과’ 대응하는 형태의 방언에는 ‘-광’외에 ‘-흐곡’, ‘-이(영)’ 등이 제주방언에 쓰인다.

- (26) 가. 영희는 밥광 군것질을 좋아햐져.(영희는 밥과 군것질을 좋아한다.)
- 나. 떡광 밥광 국광 햐영 먹엇져.(떡과 밥과 국과 많이 먹었다.)
- 다. 아방은 어멍광 사이가 좋수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습니다.)
- 라. 성은 아시광 지레가 고틸져.(형과 동생은 키가 똑 같다.)
- 마. 철수는 국광 밥광 출래를 다 먹엇져.(철수는 국과 밥과 반찬을 다 먹었다.)
- 바. 그 과부가 이 밤광 저 밤사이에 간 만난 왓져.(그 과부가 이 밤과 저 밤 사이에 가서 만나고 온다.)

접속 조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묶은 결과로 나타난 조사라는 점에서 다른 조사와는 크게 구별되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26)의 문장은

(27) 가. 영희는 과일을 좋아한다.

나. 영희는 과자를 좋아한다.

다. 영희는 과일과 과자를 좋아한다.

위와 같이 두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져 한 문장으로 묶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과'는 단순히 명사 뒤에 결합되는 일반 조사와는 그 기능을 달리하는 조사다. 일반 조사가 결합된 문장은 그 조사 때문에 단문이던 것이 복합문이나 접속문이 되는 일이 없는데, 이 '-광'은 접속문(중문)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 점에서 매우 특별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예문 (1가)와 같은 문장을 단문으로 인식하였으나, 요즈음은 접속 조사가 쓰인 문장은 접속문(중문)으로 인식한다.

접속 조사 '-광'과 공동격 조사 '-광'의 차이점은 다음 몇 가지로 구별 할 수 있다. 첫째, 공동격 조사 '-광' 뒤에는 다른 보조사²³⁾가 결합될 수 있음에 비해 접속 조사 '-광' 뒤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8) 가. 영희는 동생광도 사이 좋게 놀았어.

나. *영희는 밥광도 군것질을 좋아했어.

23) 이기석(2004:38)이 제주 방언 '-광'의 연구에서 '-광'이 CON2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랑'이나 '-하고'와 유사한 반면에, CON2 다음에 격조사를 쓸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과/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어명광 아방광이 싸왓수다.(0: 여기서 '숫자 '0'은 한 사람도 발화자가 없음을 뜻함)'를 들고 있다. 물론 'CON2 + -광 +-이'는 비문이다. 이것은 '-이'가 주격 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조사가 아닌 조사 즉 보조사는 연결이 가능하다. 국어에서 격조사가 중복이 되면 비문이 되지만 '격조사 + 보조사'((너와는 어떤 사이니?)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방언도 한국어의 한 하위 언어이기 때문에 제주 방언 격조사 '-광'다음에 보조사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래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다.

(예) 가. 나광 그 삼춘광도 양지가 닳았덴 해서.

나. 느광 나광은 성질이 꼭 그트덴 험저

다. 어명광 아방광도 슬 쉼던 살암시난 양지광 닳아감서.

라. 그 씨광 이 씨광은 틀린 씨여.

- 다. 아방은 어명광도 사이가 좋수다.
- 라. 성은 동생광도 지레가 고타저.
- 마. *철수는 국광 밥광도 출래를 다 먹엇저.
- 바. *그 과부가 이 밤광도 저 밤사이에 간 만남 왓저.

(28가)와 (28다), (28라)에서는 보조사²⁴⁾가 결합될 수 있는 반면 (28나)와 (28마) 그리고 (28바)는 허용이 안 된다.

둘째, 공동격 조사를 취한 명사는 주어와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29)에서는 제주 방언 '-광'이 연결된 성분과 주어와 자리를 바꾸어 봤다.

- (29) 가. 동생은 영희광 사이 좋게 놀암저.
- 나. *밥광 영희는 군것질을 좋아햐저.
- 다. 어명은 아방광 사이가 좋수다.
- 라. 아시는 성광 지레가 고타저.
- 마. *국은 철수광 밥광 출래를 다 먹엇저.
- 바. *이 밤은 그 과부광 저 밤사이에 간 만남 왓저.

(29가), (29다), 그리고 (29라)처럼 주어와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반해 접속 조사에서는 (29나)와 (29)에서 보듯 그럴 수 없다.

24) 이기석(2004)이 제주 방언 '-광'의 연구에서 '-광'이 CON2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랑'이나 '-하고'와 유사한 반면에, CON2 다음에 격조사를 쓸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과/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한다.

(예) . 어명광 아방광이 싸웁수다.(0)

(예)에서 CON2 '-광' + '-이'는 물론 비문이 된다. 이것은 '-이'가 격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조사가 아닌 조사 즉 보조사는 아래와 같이 성립이 된다.

- 가. 나광 그 삼춘광도 양지가 닳아텐 해서.
- 나. 느광 나광은 성질이 꼭 곱으텐 햐저.
- 다. 어명광 아방광도 슬 쉬언 살암시난 양지광 닳아감서.
- 라. 그 씨광 이 씨광은 틀린 씨여.

셋째, 접속 조사가 이어진 성분은 생략이 되면 복문이 단문으로 될 뿐 문장 자체는 완전한데, 공동격 조사가 결합된 성분은 생략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 (30) 가. ?영희는 사이 좋게 놀았저.
나. 영희는 군것질을 좋아했저.
다. ?아방은 사이가 좋수다.
라. ?성은 지레가 낫등허다.
마. 철수는 출래를 다 먹었저.
바. 그 과부가 저 밤사이에 간 만남 왓저.

(30나)는 (26가)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문장 자체로는 흠 없는 문장인데 비해, (30가)는 의미전달이 불완전한 문장인 것이다. (30마)와 (30바)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30다)와 (30라)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6)의 (26나), (26마)와 (26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1) 가. 영희는 밥을 좋아했저.
나. 영희는 군것질을 좋아했저.
다. 영희는 밥광 군것질을 좋아했저.
- (32) 가. 철수는 국을 다 먹었저.
나. 철수는 밥을 다 먹었저.
다. 철수는 출래를 다 먹었저.
라. 철수는 국광 밥광 출래를 다 먹었저.
- (33) 가. 그 과부가 이 밤사이에 간 만남 왓저.
나. 그 과부가 저 밤사이에 간 만남 왓저.
다. 그 과부가 이 밤광 저 밤사이에 간 만남 왓저.

즉 위에서 보듯 접속조사 기능을 하는 ‘-광’은 결합된 성분이 생략되어도, 복문이 단문으로 될 뿐 문장 자체에는 흠이 없다. 따라서 제주 방언 ‘-광’은 격조사의 하나인 공동격 조사의 ‘와/과’와 접속조사인 ‘와/과’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²⁵⁾

제주 방언에서 사용되는 ‘-이(영), -흐곡,’은 제주 방언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속조사라 할 수 있다. 이들과의 교체를 통하여 ‘-광’을 살펴보자. 타당성을 위해 앞에 (8)문장을 그대로 인용한다.

(34) 가. 아방은 어멍(광 / 흐곡/ 이영) 좋수다.

나. 성은 아시(광 / 흐곡, 이영) 지레가 킷등하다.

다. 철수는 국(광 / 흐곡 / 이영) 밥광 출래를 다 먹었저.

라. 그 과부가 이 밤(광 / 흐곡 / 이영) 저 밤사이에 간 만난 왓저.

(35) 가. 아방은 어멍(광도 / 흐곡도 / 이영도) 좋수다.

나. 성은 아시(광도 / 흐곡도 / 이영도)키가 킷등허다.

다. ?철수는 국(광도 / 흐곡도 / 이영도) 밥(광도 / 흐곡도 / 이영도) 출래를 다 먹었저.

라. ?그 과부가 이 밤(광도 / 흐곡도 / 이영도) 저 밤사이에 간 만난 왓저.

(36) 가. 어멍은 아방(광 / 흐곡 / 이영) 좋수다.

나. 아시는 성(광 / 흐곡/ 이영) 지레가 킷등허다.

다. *국은 철수(광 / 흐곡 / 이영) 밥(광 / 흐곡 / 이영) 출래를 다 먹었저.

라. *이 밤은 그 과부(광 / 흐곡 / 이영) 저 밤사이에 간 만난 왓저,

(34),(35),(36)에서 보듯이 ‘-광’과 ‘-흐곡’ 그리고 ‘-(이)영²⁶⁾’은 다 같은 기능을

25) 격조사에는 주격, 관형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호격, 서술격 조사가 있다. 종래에는 처소격, 여격, 방위격, 구격 또는 조격, 공동격, 호격 등으로 불리던 조사들이 새 통일 국어문법에서는 부사격으로 묶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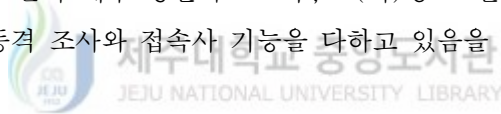
26) ‘-이영’은 서술형 ‘이라’의 이형태인 ‘이여’에 ‘-(이)ᄃ’이 결합된 형태다.(강정희, 1988, 『제주방언연구』, p.132)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다만 ‘-광’과 ‘-혹’은 선행성분의 제약 없이 나타나지만, ‘-(이)영’은 선행성분이 모음으로 끝나면 ‘-영’으로 실현되는 환경을 갖는다. 따라서 (31다)와 (34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7) 가. 철수는 국을 다 먹었다.
- 나. 철수는 밥을 다 먹었다.
- 다. 철수는 출례를 다 먹었다.
- 라. 철수는 국(광/ 혹 / 이영) 밥광 출례를 다 먹었다.

- (38) 가. 그 과부가 이 밤사이에 간 만남 오는다.
- 나. 그 과부가 저 밤사이에 간 만남 오는다.
- 다. 그 과부가 이 밤(광 / 혹 / 이영) 저 밤사이에 간 만남 왓저.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제주 방언의 ‘-혹’, ‘-(이)영’도 선행 성분을 명사로 가질 때 ‘-광’과 같이 공동격 조사와 접속사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3. 보조사 기능

보조사는 격조사와 구분되는 특수한 성격의 조사들이다. 우선 어느 일정한 격을 담당하지 않는다. 즉 어느 한 가지 격에만 쓰이지는 않는다. 격과 같은 문법적 기능보다 어떤 의미를 보태는 기능을 하는 조사가 보조사다.

27) 정승철(1998)은 ‘-이영’과 ‘-광’이 명사구 이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다른 조사와의 통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영’은 대체로 다른 조사를 후행 또는 선행시킬 수 있는 반면 ‘-광’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래 보이는 예는 제주 방언에서 틀린 문장이 아니다.

- 가. 배광 사과광은 석엇저
- 나. 철수안티광 영이안티광 펜지를 보넷저

위의 ‘가, 나’는 제주 방언에서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이라한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발화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예와 같이 복수 접미사 ‘-들’도 선행시킬 수 있다. ‘놈광 같이 나도 나시민...’(도리개 소리 中)이라는 말은 ‘놈들광 같이 나도 나시민.. 같이 복수접미사 ‘-들’을 선행시킬 수 있다.

표준어의 ‘-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제주방언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영’-따위가 있다.

- (39) 가. 난 나비영 잡지 그럼수다.(난 나비도 잡고 싶습니다.)
나. 그 사람이영 가키엔 햄수과?(그 사람도 가겠다고 합니까?)
다. 물을 일러 불어서 종이영 장남덜이영 내여 낱 막 좇아 보뉘 뉘 물이 셔야지.(말을 잃어 버려서 종이랑 장남들이랑 내어놓아 마구 찾아 모았으되 뉘 말이 있어야지.)

- (40) 가. 그 사름 입은 것광 불쌍햏여라.(그 사람 입은 것도 불쌍하여라.)
나. 그 예즈 양지광 춤 곱다.(그 여자 얼굴도 참 곱다.)
다. 예구, 허운데기광 꿈에다 시꾸왓직이(아이고, 머리채(헝크러진 머리채)도 꿈에 나타나남직이)
라. 옷 입은 뽕닥서니광 사람 선용 아니여.(옷 입은 맵시(까지조차)도 사람 모습이 아니다.)

(39) 문장에 ‘-(이)영’ 대신에 ‘-광’을 대입해 보고, (40)에 ‘-광’ 대신에는 ‘-(이)영’을 넣어보자.

- (41) 가. 난 나비광 잡지 그럼수다.
나. 그 사람광 가키엔 햄수과?
다. 물을 일러 불어서 종광 장남덜광 내여 낱 막 좇아 보뉘 뉘 물이 셔야지.
- (42) 가. 그 사름 입은 것이영 불쌍햏여라.(그 사람 입은 것도 불쌍하여라.)
나. 그 예즈 양지영 춤 곱다.(그 여자 얼굴도 참 곱다.)
다. 물을 일러 불어서 종이영 장남덜이영 내여 낱 막 좇아 보뉘 뉘 물이 셔야지.
바. 옷 입은 뽕닥서니영 사람 선용 아니여.

(41)에서 보면 ‘-(이)영’ 대신에 ‘-광’을 넣어도 비문이 안 된다. 또한 (42)에서

‘-광’ 대신에 ‘-(이)영’을 넣어도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갖는다.

표준어 ‘-도’는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의미상 복수를 상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의 ‘-광’ 역시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복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43) 가. 그것 외에 -도
나. 다른 -와 마찬가지로 -도
다. -뿐만 아니라 -도
라. -처럼 -도

위의 예를 (44)에 대입해보면 문의 의미도 더욱 명확해지는 것으로서 부가된다.

- (44) 가. [(먹는 것) 외에] 그 사람 입은 것광 불쌍하여라.(그 사람 입은 것도 불쌍하여라.)
나. [(목)과 마찬가지로] 그 예즈 양지광 춤 곱다.(그 여자 얼굴도 참 곱다.)
다. 예구, [(얼굴)뿐만 아니라] 허운데기광 꿈에다 시꾸왓직이(아이고, 머리채(헝크러진 머리채)도 꿈에나 나타남직이)
라. [(신발 신은 것)처럼] 옷 입은 뽕닥서니광 사람 선용 아니여.(옷 입은 맵시(까지/조차)도 사람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역시’의 의미로 확대될 수 있는 의미적 조건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역시’의 의미는 다시 강조나 감탄의 의미로 확대 될 수 있는데, 이는 표준어 ‘-도’가 보여주는 바이다. 그러므로 제주 방언의 ‘-광’이 강조나 감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접속의 의미에서 ‘역시’의 의미로 확대된 뒤, 다시 ‘강조나 ‘감탄’과 같은 의미로의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은 ‘-도’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광’의 ‘-도’이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로는 박용후가 있다.²⁸⁾ ‘-(이)영’을 표준어의 ‘-도’와 같은 의미를 갖

28) 박용후(1988:65)도 ‘-광’이 ‘-도’에 대응된다.

는다는 견해는 김병제가 있다.²⁹⁾

2.2.4. 나열화 기능

제주 방언 ‘-광’이 나열의 기능도 한다. 여기서는 제주방언에 [+나열성] 기능을 하는 접미사의 ‘-흐곡’, ‘-이영’³⁰⁾과 교체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45) 가. 붉은 험벽이영 노랑흐 험벽이영 푸린 험벽이영 즈색 험벽이영 먼 돌렸저.³¹⁾(붉은 천과 노랑 천과 푸른 천과 자색 천을 모두 달아놓았다.)
나. 즈청빈 문도령광 정수남이영 서이라 그덜 넘어가단 보았저.(자청비는 문도령과 정수남이와 셋이서 그곳을 넘어가다가 보았다.)
다. 쇠영 개영 씩는 브름에 손해 본건 나여.(쇠하고 개하고 싸우는 바람에 손해 본 것은 나다.)

(46)에서 ‘-광’과 ‘-(이)영’, ‘-흐곡’은 의미가 똑 같다.

- (46) 가. 붉은 험벽(이영 / 광 / 흐곡) 노랑흐 험벽(이영 / 광 / 흐곡) 푸린 험벽(이영 / 광 / 흐곡) 즈색 험벽(이영 / 광 / 흐곡) 먼 돌렸저.
나. 즈청빈 문두령(광 / 흐곡 / 이영) 정수남(이영 / 광 / 흐곡) 서이라 그덜 넘어가단 보았저.
다. 쇠(영 / 광 / 흐곡) 개(영 / 광 / 흐곡) 씩는 브름에 손해 본건 나여.

위에서 보듯이 ‘-이영’, ‘-흐곡’만이 아니라 ‘-광’도 [+나열성]을 가진다.³²⁾ 중세 국어에서도 공동격 조사 ‘-와/과’형태로 쓰이면서 나열격 조사로 기능하는 것을 (42)의 예에서 볼 수 있다.

29) 김병제(1965:107)

30) 강근보와 이승녕은 공동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근보(1977:23), 이승녕(1953:37).

31) 강정희(1988:130)에서 재인용. 원래 문장은 ‘즈색 험벽이영 먼 돌리니’인데 ‘즈색 허벽이영 먼 돌렸저’로 바꾸었다. 여기서 인용되는 문들은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은 임의적으로 문장을 맺는 식으로 인용하여 쓰고자 한다.

32) 강정희(1988)는 이러한 기능을 구접속으로 설명하고 있다.

- (47) 가. 나모와 곳과 果實와는(釋詳六, 40)
 나. 입시우와 혀와 니왜 다 도흐며(釋詳19, 7)
 다. 봄과 드름과 마툼과 맛 아롬과 모매 다흙과 잡뜰괘 다업스릴씩(釋詳六, 8)
 라. 아바넝기와 아즈마넝기와(釋詳六, 1)

2.3. '-광'과 관련된 사항

2.3.1. 후행 명사 + '-광'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 방언 '-광'의 형태는 '-와/과'라고 했다. 그러나 표준어에서 접속조사 '-와/과'는 선행성분과만 연결되고 마지막에 나열되는 성분과는 결합이 안 된다. 만약 후행 명사와도 연결이 되면 틀린 문장이 된다. 그러나 제주방언에서는 아래의 문장은 성립된다.

- (48) 가. 어명광 아방광 싸웁수다.(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계십니다.)
 나. 산광 바당광 어디가 좋수광?(산과 바다중에 어디가 좋습니까?)
 다. 너광 나광 ㄱ찌 가젠 햅저(너와 나도 같이 가자고 한다.)
 라. 성광 아시광 ㄷ토는 것광.(형과 동생과 다투는 것도.)

뒤 명사에도 '-와/과'가 붙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와/과' 이외에 공동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이 구어체에서는 '-하고', '-랑'이 있다. 이 '-하고',와 '-랑'은 두 명사에 다 붙어 나올 수 있다.

- (49) 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다.
 나.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한다.
 다. 남자랑 여자랑 결혼한다.

- (50) 가. *철수와 영희와 걷던 길
 나. 철수하고 영희하고 걷던 길
 다. 너하고 나하고 함께 걷던 길

- (51) 가. *너와 나와의 믿음
 나. 너하고 나하고의 믿음
 다. 너랑 나랑의 약속

(49가), (50가), (51가)는 표준어 '-와/과'가 이들 문장에 끝 명사에 '-와/과'가 쓰이면 비문을 보이고 있지만, (49나), (49다), (50나), (50다) 그리고 (51나), (51다)인 구어체의 '-하고', '-랑'은 뒤 명사에도 자연스럽게 붙고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와/과'의 형태를 중세 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뒤에 '-광'을 다른 기능으로 보는 것이다.

- (52) 가. 中國소리엿 나쏘리는 齒頭와 正치와 고티요미 잇느니(訓諺 14b)
 나. 엄과 혀와 입시울와 목소리 옛字는 中國 소리에(訓諺 15b)
 다. 그지업서 묻내 혜습을 功과 德과 人天所不能盡讚 이시니라(釋譜序 1b)
 라. 사름들과 하늘들히 내내 기리 습디 묻 흐습 논 배 시니라(釋譜序 2a)
 마. 보살마하살삼천만륙천과 國王과 大臣과 羅門과 居士와 니블 믈디며 너 나뉜 그지 업슨 드힌일와 슬픈일와 시름와 恨이리(釋詳 8b)
 바. 有情이 늬과 단나물 즐겨 싸화 저와 늬과를 어즈러(釋詳 16b)
 사. 燈照王이 臣下와 百姓과 領코(月釋一 14a)
 아. 비레 그츠니 방햏고와 호학과 곤도다(杜諺 2a)
 자. ㅂ르미 잠간 부니 저비와 새왜 노피 ㅂ넛다(杜諺 4a)
 차. 三狝은 쇼와 羊과 돌과라(內訓一 46b)
 카. 아들과 며느리왜 孝道 흐리와(內訓一 51a)
 타. 父母와 舅姑왜 病이 잇거시든(內訓一 52a)
 파. 夫婦義 이신 後에 사 아비와 아드왜 친흐요미 잇고 아비와 아드왜 친흐요미 이신 後에사 ㅂ금과 臣下왜 正히 흐요미 잇느니(內訓一 75b)

(5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중세국어에서 ‘와/과’³³⁾는 현대국어와 달리 맨 뒤에 오는 명사에도 결합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은 다른 방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3) 가. 떡과 감씨과 바꾸자주 했다.(떡과 감씨를 바꾸자고 했다.)[평북]

나. 그 집과 그 집과야 서로 맞나?[강원 양양]

다음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이 뒤에 오는 ‘-광’을 앞에 오는 것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48)에 것을 가져다 재구성해보자.

(54) 가. 어명광 아방광 싸웁수다.

가’. 어명광 아방이 싸웁수다.

나. 산광 바당광 어디가 좋수광?

나’. 산광 바당중에 어디가 좋수광?

다. 너광 나광 ㄴ찌 가겐 햐찌.

다’. 너광 나도(하교) ㄴ찌 가겐 햐찌.

라. 성광 아시광 ㄷ토는 것광.

라’. 성광 아시가 ㄷ토는 것광.

(54)의 ‘가, 라’는 주격이 기능을, ‘나’는 비교(선택)를 그리고 ‘다’는 보조사 내지는 공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후행 명사 다음에 결합된 ‘-광’은 다음과 같이 층위 분석이 될 것이다.

(55) 가. [[어명광 아방]광]

나. [[산광 바당]광]

다. [[너광 나]광]

라. [[성광 아시]광]

33) 중세국어에서 ‘와/과’의 형태는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는 ‘-과’이지만, 모음과 ‘ㄹ’ 뒤에는 ‘-와’가 쓰임. 여기서는 구태여 ‘-와/과’의 형태를 접속 조사와 공동격 조사 구별은 하지 않는다.

또한 현대국어의 구어체에서는 흔히 조사가 생략됨을 보인다.

(56) 가. 손님들이 다 오셨구나.

나. 손님들 다 오셨구나.

(57) 가. 무슨 책을 읽었니?

나. 무슨 책 읽었니?

(58) 가. 넌 고등학생이고 난 대학생이다.

나. 넌 고등학생, 난 대학생이다.

(59) 가. 영희가 우등생이면 철수는 최우등생이게?

나. *영희 우등생이면 철수는 최우등생이게?³⁴⁾

(56), (59)은 주격 조사, (57)은 대격 조사, (58)은 서술격 조사가 생략된 예이다. 조사의 생략은 이처럼 구어체에서 흔히 일어난다. 이와 같이 조사가 생략되었다는 가설을 중세 국어에서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60) 가. 아버와 아들왜 친흐요미 이신 後에사 (內訓一 75b)

나. 三豸은 쇼와 羊과 돌괘라(內訓一 46b)

(60)에서 뒤에 '-와/과'가 결합한 성분만은 (60가)에서 '아들왜'는 '아들와 + ㅣ'로, (60나)의 '돌괘라'는 '돌과 + ㅣ'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을 현대국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61) 가. 아버와 아들과의 친함이 있는 후에야

나. 삼성은 소와 양과 돼지이다.

34) 구어체에서도 조사가 생략되면 (59나)처럼 어색한 문장들이 있어 그 정확한 생략 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61)의 문장은 구어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뒤에 ‘-와/과’ 성분에 결합한 조사 생략해도 의미에는 이상이 없다.

(62) 가. 아버지와 아들과 친함이 있는 후에야
나. 삼성은 소와 양과 돼지다.

위와 같이 가정했을 때 (48)의 원래 문장은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없고 논자의 추론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63) 가. 어명광 아방광 싸웁수다.(어머니와 아버지과 | 싸우고 계십니다.)
나. 산광 바당광 어디가 좋수광?(산과 바다와 | 어디가 좋습니까?)
다. 너광 나광 ㄴ찌 가겐 험찌.(너와 나와 | 같이 가자고 한다.)
라. 성광 아시광 ㄷ토는 것광(형과 동생과 | 다투는 것도)



2.3.2. 명사형 + ‘-광’

제주방언 ‘-광’을 위에서 살펴본 결과로는 선행 성분이 명사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기능들이었다. 여기서는 ‘-광’이 선행 성분이 명사가 아닐 때도 같은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제주 방언 조사 ‘-광’을 동사에 파생접미사 ‘-ㄱ(음)’을 결합했을 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 방언에 동사류 연결 접미사 ‘-곡’과 관련시켜 알아보고자 한다.

표준어 나열어미 ‘-고’에 대응되는 것이 ‘-곡’이다. 이것은 ‘-고’에다 첨사 ‘ㄱ’이 첨가된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이 어미는 표준어 ‘-고’와 대응된다. 성낙수(1984)는 표준어 ‘-곤’³⁵⁾에 대응된다고 보고 있다.

35) 성낙수(1984:91-92)에서 ‘-곡’을 되풀이형을 뜻하며 표준어의 ‘-곤’으로 대신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ㅁ음세도 곱곡 안시웅한 게 만며느리로 그만이네.’ 이것을 되풀이형인 ‘-곤’을 놓고 해석하면 ‘마음씨도 곱곤 안시웅한 게 만며느리로 그만이네’와 같이 된다. 즉 마음씨가 곱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마음씨가 곱다는 것이 되풀이된다는 말이 되어 어색해진다. 예문하나를 더보면, ‘도새기 물도 주곡 흐라’ (성낙수, 1984:91) → ‘돼지에 물도 주곤 하라’다. 여기서 이 발화는 돼지 물을 반복해서 주라는 의미보다는 돼지 물도 잊지 말고 주라는 강조의 뜻을 더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64) 가. 험뜯험뜯당 비 오곡 험뜯험뜯당 비 오곡 어디 김질 메지크라?(해가 잠깐 비치다가 비가 오고, 해가 잠깐 비치다가 비가 오고 어떻게 김을 뽑을 수 있나?)

나. 믹음세도 곱곡 안시웅한게 맘며느리로 그만이네.(마음씨도 곱고, 안시웅³⁶)한 게 맘며느리로 그만이네)

다. 어멍은 배 곱팡 죽곡 애긴 배 터정 죽곡.(어머니는 배가 곱파서 죽고, 아기는 배 불러서 죽고)

(64)에서 보면 모두 ‘-고’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꼭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은 ‘-고’보다 ‘-곡’³⁷이 더 강조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좀더 알 수 있게 표준어에서 ‘-고’가 쓰인 문장을 살펴보자.

(65) 가. 산이 높고 물이 맑다.

나. 라디오를 틀고 뉴스를 들었다.

(65)의 ‘-고’는 같은 형태이지만, (65)는 ‘-고’라는 연결어미가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고 있다. 그러나 (65나)의 ‘-고’는 종속적으로 이어주고 있다.

(66) 가. 산이 높곡 물이 맑다.

나. 라디오를 틀곡 뉴스를 들었다.

(66)에서 ‘-고’ 대신에 ‘-곡’으로 대신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사용되는 ‘-곡’은 연결어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36) 높낮이가 없이 널따랗게 되어 있는 모양. 강영봉(1994:49).

37) 중세국어에서 강세의 보조사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ㄱ, -ㅇ, -ㄹ’이 존재한다. 다른 보조 조사들이 주로 체언에 통합하는 것에 반하여 이 강세의 조사는 부동사의 뒤에 주로 나타난다.

가. 세 번 거러갈 머리 도르혀 브라고(杜初七, 5)

나. 죽곡 주그며 나곡 나(楞巖四, 30)

또한 제주 방언에는 현재도 ‘집에 가곡 허라’ 같은 말에서 이 ‘-ㄱ’의 보조사가 남아있다. 또한 ‘-ㅇ’의 보조사도 남아 있다. ‘오멍 가멍 들르라’(오며 가며 들려서 가라)

‘-곡’대신에 제주 방언 ‘-광’을 넣어보자. 그리고 같은 의미의 ‘-호곡’, ‘-(이)영’을 대신해보자.

(67) 가. 해뜬햇당 비 오곡(*광 / *호곡 / *영) 해뜬햇당 비 오곡 어디 검질
메지크라?

나. 므음세도 곱곡(*광 / *호곡 / *영) 안시응한게 맘며느리로 그만이
네.

다. 어멍은 배 고폡 죽곡(*광 / *호곡 / *영) 애긴 배 터정 죽곡(*광
/ *호곡 / *영).

(67)에서 보면 ‘-광’, ‘-호곡’, ‘-(이)영’ 등이 결합되면 비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광’이 등위 연결 접미사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한 번 생각해보자.

(68) 가. 해뜬햇당 비 오곡

나. 므음세도 곱곡

다. 어멍은 배 고폡 죽곡

(69) 가. 붉은 험벽이영

나. 드청빈 문두령광

다. 쇠호곡

(68)에서 보듯이 앞 선행성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곡’인 경우 ‘오다’, ‘곱다’, ‘죽다’와 같이 용언과 결합을 보이고 있다. (68가), (68다)는 동작동사에 (68나)는 상태동사에 결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69)에서 보듯 ‘-광’은 (69가)는 무정명사 (69나)와 (69다)는 유정명사와 결합을 보이고 있다. 즉 ‘-광’은 명사를 연결해주고 ‘-곡’은 용언에 결합하여 문장끼리 대등한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광’의 형용사에 연결되는 성질이 있는데 (67나)에서 ‘므음세도 곱광’이 왜 비문이 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 ‘광’이 연결되면 문종결 어미로서 문장 자체

가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바뀌어 ‘마음씨도 곱다’는 뜻에서 ‘마음씨도 곱습니까?’라는 원래 문장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광’과 대치 가능한 ‘-혹’이 쓰인 문장이라도 ‘-광’과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은 같은 ‘-혹’이라도 ‘-광’이 대치 될 수 없는 경우이다.

(70) 가. 그 사람 양지도 히양혹 배도 무룩하게 나온 걸 보민 서월 생활이 참 좋은 생이라.(그 사람 얼굴도 하얗고 배도 무룩하게³⁸⁾ 나온 것을 보면 서울 생활이 참 좋은 모양이다.)

나. 잘 눅정 놔두민 옆어지기도 허곡 갈라지기도 허영 여간 성가셔 마썸.
(잘 눅혀 놔두민 옆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여 여간 어지간히 성가신 일입니까?)

다. 나서 화목은 남즈가 혹 들어 화목은 여즈가 한다.(나가서 화목은 남자가 하고 들어서 화목은 여자가 한다.)



(71) 가. * 그 사람 양지도 히양광 배도 무룩하게 나온 걸 보민 서월 생활이 참 좋은 생이라.(그 사람 얼굴도 하얗고 배도 무룩하게³⁹⁾ 나온 것을 보면 서울 생활이 참 좋은 모양이다.)

나. * 잘 눅정 놔두민 옆어지기도 광 갈라지기도 허영 여간 성가셔 마썸.
(잘 눅혀 놔두민 옆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여 여간 어지간히 성가신 일입니까?)

다. * 나서 화목은 남즈가 광 들어 화목은 여즈가 한다.(나가서 화목은 남자가 하고 들어서 화목은 여자가 한다.)

(70)에서 (70가)는 ‘그 사람 양지도 히양혹(그 사람 얼굴은 하얗다.)’ (70나)는 ‘잘 눅정 놔두민 옆어지기도 허곡(잘 눅혀 놔두민 옆어지기도 한다.)’ (70)에서는 ‘나서 화목은 남즈가 혹(나가서 화목은 남자가 한다)’와 같이 전부 ‘-혹’이 ‘-

38) 배가 볼록 나온 상태

39) 배가 볼록 나온 상태

한다'의 뜻을 내포할 때는 표준어 '-하고'와 대응되면서 연결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앞 성분이 명사가 아닐 경우는 (71)에서와 같이 '-광'과 '-혹'이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제주 방언 '-광'은 선행 성분이 반드시 명사라야만 하는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지, 동사와 연결되면 비문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제주 방언에서 아래와 같은 말들도 언중들에 의해서 쓰인다.

(72) 가. 자인 무사 저추록 껍껍 워광.(저 아이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내는고.)

나. 오늘 따라 낮이 날씨는 무사 더웁광.(오늘 따라 낮 날씨는 왜 그렇게 더운고.)

다. 니 형은 삭삭 바쁘디 므실 감광.(네 형은 매우 바쁘게 놀러가고)

라. 지 몸도 성치 안으디 밭에 일을 호젠 흠광.(자기 몸도 건강하지 못하면서 밭에 일을 하려고 하고.)

마. 널은 새벽에 일어나사 되는데 잠은 무사 영 안 움광.(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은 왜 이렇게 안 오는고.)

(72)는 선행 성분이 명사가 아닌 경우이지만 비문이 아니다.

'-광'이 연결된 성분들을 보면 (72가)는 '워광' (72나)는 '더웁광' (72다)와 (72라)는 '감광'과 '흠광' 그리고 (72마)는 '움광'과 같이 동사⁴⁰⁾를 명사화 시켜 제주 방언 '-광'을 연결시켰다. 즉 '워광' → '외- + -ㅁ- + -광', '더웁광' → '더(덥)- + -ㅁ- + -광', '감광' → '가- + -ㅁ- + -광'을 그리고 '흠광'과 '움광'은 'ㅎ + -ㅁ- + -광'과 '오- + -ㅁ- + -광'과 같이 동사에 명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ㅁ/음'을 결합하여 명사화 한 것이다.

그러면 (72)처럼 동사에 파생접미사 '-ㅁ/음'과 결합하여 파생명사와 결합한 '-광'

40) 여기서 동사라 하면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자 한다.

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72)문장이 어떤 문인가를 살펴야 하겠다.

(72가)에서 '자인 무사 저추록 껍뻍 뽀뽀'은 '저 아이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람 바람 소리를 내는 고'와 같이 한탄조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문장이 다 완성 되기보다는 뒤에 어떤 말이라도 더 와야 하는 문장이다. 가령 '애기는 무사 잘 뽀뽀'이란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애기는 무사 잘 뽀뽀,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속상하다.'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72)문장에도 뒤에 말을 추측⁴¹⁾하여 넣어 보면 (71)과 같다.

(73) 가. 자인 무사 저추록 껍뻍 뽀뽀,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난리인데.(저 아이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람바람 소리를 내는고.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나. 오늘 따라 낮이 날씨는 무사 더뽀뽀, 파리는 무사 고찌 들영 들끓음 뽀뽀, 속상하다.(오늘 따라 낮 날씨는 왜 그렇게 덥고, 파리조차 많고, 속상하다.)

다. 니 형은 삭삭 바쁘디 므실 감뽀뽀, 이걸 도와 주민 어디가 덧나는지.(너의 형은 매우 바빠서 놀러가고, 이것을 도와 주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라. 지 몸도 성치 안으디 밭에 일을 흥젠 뽀뽀, 걱정뽀뽀.(자기 몸도 건강하지 못하면서 밭에 일을 하려고 하고 걱정된다.)

마. 널은 새벽에 일어나사 되는데 잠은 무사 영 안 뽀뽀, 옆 사람은 오늘 따라 코고는 소린 무사 크게 들렘신고.(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은 왜 이렇게 안 오는고. 옆 사람은 오늘 따라 코고는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73)에서 보면 파생명사 뒤에 결합한 '-뽀뽀'의 기능도 [+ 나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뒤에 말을 추측하여 넣는다는 것은 여기에 넣은 말 대신에 다른 말도 올 수 있다는 뜻이다.

2.2.3. 기타 '-광'의 의미

우리 국어에는 조사 다음에 조사가 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의 '-광' 다음에도 보조사가 붙어서 '-광'의 의미를 보조해주고 있다.

- (74) 가. 너광도 나광도 ㄴ찌 가겐 햄찌.(너와도 나와도 같이 가자고 하고 있다.)
나. 아방광도 안 됨직 허냐?(아버지와도 안 될 것 같으냐?)
다. 그 사람광도 싸워시냐?(그 사람과도 싸웠느냐?)
라. 오래비광도 의논해방.(오빠와도 의논해 보아서)

(74)에서 보면 '너광 나광 ㄴ찌 가겐 햄찌.'(너와 나와 같이 가자고 하고 있다.) 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지만, '-도'가 더 결합되므로 인해서 같이 가자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4나), (74다), (74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음(75)는 부정 서술어와 같이 쓰여 '-나'의 의미가 나타난다.

- (75) 가. 코시흐는 집이 개괴기광 몰괴기 먹은 사름이 가민 부정탄다.(고사 지내는 집에 개고기나 말고기를 먹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부정탄다)⁴²⁾
나. 버드낭광 쉽사리론 불숨으민 ㄴ쉬에 손해본다.(버드나무와 대싸리로 불 때면 말이나 소에 손해를 본다.)
다. 함문몰광 목카니 질루민 해롭다.(함문말과 목카니 기르면 해롭다-함문말은 흰 줄기가 이마에서 입술까지 뻗친 말이요, 목카니란 목에 흰 점이 박힌 말이다.⁴³⁾
라. 꿈에 돛괴기광 쇠괴길 먹어뵈민 곳불에 걸린다.(꿈에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먹으면 감기에 걸린다.)⁴⁴⁾

42) 정성 드리는 제사와 관련하여 사람이 먹어서 꺼리는 음식으로는 “개고기”와 “말고기”를 든다.

43) 이러한 말들은 기르는데 순탄치 못하다는 말.

44) 감기 귀신은 기름기 많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마. 꿈에 머리턱광 쉬엄이 빠져보민 즈손에 근심이 생긴다.(꿈에 머리카락과 수염이 빠지면 자손에 근심이 생긴다.)⁴⁵⁾
- 바. 호충에 꺼린 사름은 입관홀 때광 하관홀 때 보민 직스한다.(호충(상극)에 꺼린 사람은 입관할 때와 하관할 때 보면 즉사한다.)⁴⁶⁾
- 사. 백장 펜광 솔 건 펜데렌 머리 돌리지 아니한다.(벽장 쪽과 부엌 쪽으로 머리를 향하지 아니한다.)⁴⁷⁾

위에서 보면 '-광'이 '-나'로 해석되고 있으면서 부정 어사에 연결 되어있다. 이 때 조사 '-든지'와 유의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76)에서는 제주 방언 '-광'이 도치를 통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76) 가. 남남하게 생긴 것광 께나 부럼직 허다.(남남하게⁴⁸⁾ 생긴 것이 께나 부럼 것만 같다.)

나. 목광 닷질은 헤듬서, 뭇 먹어 삼주.(목이 다섯 발은 하고는 뭇 먹어야 지요.)

다. 그 집 딸은 영치광 녀시근헌 게 즈손 귀헌 집 메뉴리로 시집 가시면 좋암직 허여(그 집 딸은 영덩이가 커 자손 귀한 집 며느리로 시집가면 좋을 것 같다.)

라. 코광 닷 발은 흘치고(코를 다섯 발은 흘리고)

(76)에서도 명사 나열의 기능은 없고 '-광'이 연결된 명사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76가)는 '께나 부럼직 허게 생긴 것광', (76나)는 '닷질의 목광' 그리고 (76)의 '녀시근헌 영치광' (76)의 '닷 발의 코광'이 원래 어순인 것을 도치를 통해서 강조의 의미를 더 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5) 머리카락과 수염은 자손으로 연관된다는 속신에서 비롯됨.

46) 사람이 죽었을 때 택일을 해 보면 그 망인의 띠와 상극관계에 있는 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일컬음.

47) 이는 곧 벽장 쪽은 막혀 있는 곳이요, 부엌 쪽은 불 때는 쪽으로서 그러한 곳으로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 막히고 불타는 격이라 불길하다는 속신에서 이르는 말

48) 번지르르하다.

(77) 가. 자이 곤웃광 보기 좋은게.(저 애는 고운 옷 입은 것이 보기 좋다.)
나. 자이 입은 것광 저 꼴 보라.(저 애는 입은 옷 모양과 저 모습을 보라.)

(77) 옷 입은 것에 대한 제주 방언 ‘-광’이 쓰임인데도 (77가)는 칭찬을 하는 말이
이고, (77나)는 입은 옷이 변변하지 못하다고 나무라는 뜻이다.

(78) 가. 그 집 주변광 어떻힐 수가 어신디.(그 집 주변(환경)이 어떻게 할 수
가 없다.)
나. 저 집 딸은 가슴속에 바람광 ㄹ득헛저.(저 집 딸은 가슴속에 바람이
가득 찼다.)
다. 그 삼촌은 지레광 양지광 쫄락허다.(그 삼촌은 키와 얼굴이 길다.)

(79) 가. 잘 흐젠 허는 ㄹ슴광 보라.(잘 해 보려는 마음을 보라.)
나.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광 입엇저.(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다.)

(78)에서는 제주 방언 ‘-광’이 ‘-이’에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79)는 ‘-광’이 ‘-
을/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 방언 조사 ‘-광’은 표준어 조사에서
갖는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지금까지 제주 방언 조사 '-광'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주 방언 '-광'은 음운론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선행 성분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광' 하나로 실현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표준어의 '-와/과'가 선행 성분의 자음이면 '-과'로 선행 성분이 모음이면 '-와'로 실현되는 것과 다르다. 또한 중세 국어의 공동격 조사 '-와/과'도 선행 성분이 '-ㄱ'과 모음이면 '-와' 선행 성분이 자음이면 '-과'가 결합하는 현상과 다름을 알았다. 제주 방언의 표준어 '-와/과'와 중세 국어 '-와/과'와 같이 교체가 없는 현상을 근대 국어에서 '-와/과'의 혼용에서 '-과'가 훨씬 많이 쓰였고, 19세기에 이러한 현상은 없어지고 현대 국어의 '-와/과'의 조건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 방언 '-광'은 근대 국어 혼용기에 '-과' 한 가지로 쓰여 지금까지 온 것 같다는 추정을 해 봤다.

다음은 제주 방언 '-광'의 형태는 '-과'에 '-ㅇ'이 첨가된 것이다. 이것은 중세 국어에서 행위의 반복을 뜻하는 보조사 '-ㄱ, -ㅇ, -ㅁ'이 제주 방언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주 방언 '-광'의 형태도 화석화되어 쓰이고 있음을 봤다.

이러한 형태의 제주방언 '-광'이 문장에서 조사로 쓰일 때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방언 '-광'은 표준어의 '-와/과'에 대응됨을 보이면서 격조사의 기능을 한다. 이때의 기능은 대칭동사와 대칭 형용사와 같이 쓰이면서 공동격 조사 '-와/과'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비교격 조사의 기능도 한다. 또한 이제 까지 거론되지 않은 여격 조사의 기능과 처소격 기능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제주 방언 '-광'이 [- 유정명사]와 결합하면 표준어 '-에서'에 대응되는 처소격 조사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광'이 표준어 '-에/-에게'에 대응에서는 [+ 유정명사]에 결합하여 여격기능을 한다.

둘째, 제주 방언 '-광'의 공동격 조사와 같은 형태로 쓰이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의 명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 기능을 하는 '-광'이 있음을 알았다. 또한 여기서 제주 방언에 많이 쓰이는 다른 형태의 '-(이)영, -혹' 등과 교체되어 쓰인다.

셋째, 제주 방언 '-광'이 표준어 '-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제주 방언의 대표적인 '-(이)영'과 교체를 통하여 '-광'도 보조사 '-도'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제주 방언 '-광'이 [+ 나열성] 을 갖는다. 그러나 문 대등연결 '-곡'과는 그 기능이 다를 수 있다.

다섯째, 제주 방언 '-광'은 표준어에서는 후행하는 마지막 명사와 결합되면 비문이 되지만 제주 방언 '-광'은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어체와 다른 지방 방언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 같은 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여섯째, 제주 방언 '-광'이 동사에다 명사형 파생접미사 '-ㅁ(음)'을 결합하여 명사형을 만들어 '-광'이 결합했을 때의 '-광'의 기능도 [+ 나열성] 기능을 한다.

일곱째, 국어에는 조사 다음에 또 다른 조사가 올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도 제주 방언 '-광'에 나타나면서 제주 방언 '-광'이 갖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는 제주 방언 조사 '-광'이 표준어의 '-와/과'의 공동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제주 방언도 하나의 한국어의 하위 분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제주 방언 '-광'을 연구하면서 문헌들을 참고 하다보니 제주 방언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제주 방언을 모어로 습득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제주 방언자료만을 참고로 하여 연구한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해석상의 미진한 점들도 간혹 있었다.

제주 방언의 고어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을 중심으로 중세 국어에서 어떻게 변이 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중세 국어에서 확실하지 않은 문법 체계도 제주 방언에 남아 있는 고어들을 소급해서 체계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계속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제주 방언 '-광'을 연구하고자 할 때는 다른 지방 방언까지 비교, 대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참 고 문 헌

- 강근보(1978), 제주도 방언의 곡용에 대하여. 『논문집』 10.
제주대.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 1』, 제주문화사.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_____(1978), “제주 방언의 접속어미와 동작상 어미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국어학』, 국어학회.
고영근·남기심(2000), 국어학강독, 방송대출판부.
김영배(1997), 『평안방언연구』, 태학사.
김영삼(1958), 제주도 민요집. 중앙문화사.
김용혜(1995), 「제주도 사투리」, 도서출판 양지원.
김용배(1991), 『전라남도 방언연구』, 학고방.
김기혁(1955), “형태 · 통어론”, 『국어 문법 연구』, 박이정.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연구』, 도서출판 세립.
남기심(1996), 『국어문법의 탐구』, 태학사.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박동규(1988), 국어학 논문집, 제주대학교.
박용후(단기 4293), 『제주방언 연구』, 동원사.
서태룡외 5인 공저(1998), 『문법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성낙수(2000), 『우리말 방언학』, 한국문화사.
성백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1999), 『언어의 역사』, 태학사.
정승철(1998), “제주방언”, 『문법연구와 자료』,
진성기(2002),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 디딤돌.
안병희·허경 공저(2000), 국어문법론2, 방송대출판부
이기석(2004), 「언어학연구」 9. 제주언어학회.
이상규(1999), 『경북방언 문법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이승녕(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_____ (1976), “15세기 국어의 變形語 ‘있다, 시다’의 발달에 대하여”, 『국어학』
 (4), 국어학회.
- 이운금(1965), 『제주도 사투리』, 박문출판사.
- 이익섭·장소원 공저(2000), 국어학개론. 방송대출판부.
- 이익섭외2인 공저(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임홍빈·장소원 공저(1995), 『국어문법론,1』, 방송대출판부.
-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이우출판사.
- 최규일(1998), “제주 방언과 창원 지역어 어휘 비교 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청
 암 김영태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 홍종선(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 김상대(1981), “중세어 공동격 구성의 연구”, 『국어학』 (10), 탑출판사.
- 제주속담사전, 제주도.
- ‘제주도 사투리 경진대회’ 자료집
- ‘제주의 마을’ 시리즈 1권~16권, 도서출판 반석.



〈Abstract〉

A Study on the Case Marker ‘-gwang’ in Jeju Dialect

Kang, In Ja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e Kyu-il

A dialect reflects the history of the language. So the study on the dialect tells us not only the correct history of the Korean grammar but also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Korean and the dial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y to find out whether the case marker ‘-gwang’ in Jeju Dialect corresponds to the comitative marker ‘-wa/gwa’ in the standard Korean in its functions. In this study the case marker ‘-gwang’ in Jeju dialect is used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and is chiefly combined with the nouns.

A questionnaire is designed in order to find out the functions of ‘-gwang’, and the firsthand data through the survey on the spot and the collected data on the internet website were analyzed and investigated. Sundry records are also referred to in order to make up for insufficient data.

The case marker ‘-gwang’ in Jeju dialect are free from phonological restraint irrespective of the preceding component, while the comitative marker ‘-wa/gwa’ is alternatively us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component in both standard Korean and Middle Korean. This usage stems from Middle Korean period, when ‘-wa’ was combined with nouns which had the final sound ‘l’ or the vowel stem, and ‘-gwa’ with nouns which had the consonant stem. As time passed, however, this usage of the comitative marker ‘-wa/gwa’ was broken from Modern Korean period in 17th century, and ‘-gwa’ began to be combined with nouns which had the final sound ‘l’ or the vowel stem, and ‘-gwa’ was a little more used than ‘-wa’ later. After then ‘-wa’ and ‘-gwa’ came to be used randomly in Modern Korean period in the 18th century, and ‘-gwa’ was

much more used than '-wa'. In the early 19th century '-gwa' was used when the preceding component was the consonant stem, while '-wa' was used when the preceding component was the vowel stem. This usage of the comitative marker '-wa/gwa' is true of the present-day Korean. By the way, the case marker '-gwang' in Jeju dialect is supposed to be the combination of the predominantly used particle '-gwa' and the additive 'ng' in Modern Korean period

The analysis of the functions of the case marker '-gwang' in Jeju dialect tells us that '-gwang' has not only comitative and comparative but also dative and locative function. In addition to these functions, the case marker '-gwang' turned out to have such various functions as connective, complementary, and enumerative function.

And it is certain that the case marker '-gwang' has the same functions as other forms of case markers like '-hogok' and '-(i)yeong' because it is able to be replaced by them.

In the standard Korean when the comitative marker '-wa/gwa' is combined with the final noun, it is not considered that the expression is a correct one. But the case marker '-gwang' in Jeju dialect is naturally combined with the final noun. This is because the case marker '-gwang' in Jeju dialect belongs to colloquial expression rather than literary expression,

Finally, it is obvious that the case marker '-gwang' has the enumerative function in that when preceding component is not a noun but a verb, that verb is combined with derivative suffix '-m' and then is combined with the case marker '-gwang'.

It is found that the case marker '-gwang' in Jeju dialect has many correspondent functions with the comitative marker '-wa/gwa' in the standard Korean through this study. This means Jeju dialect is a subordinate part of Korean even if Jeju dialect is different from the standard Korean in its form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附 錄〉

제주 방언 조사 ‘-광’의 자료 목록

1. 낮이 훤 음식 밤이 먹음은 좋곡, 밤이 훤 음식 낮이 먹음은 나쁘다.
(낮에 한 음식을 밤에 먹는 것은 괜찮으나, 밤에 만든 음식을 낮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밤에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 불결한 오물이라도 섞여질 우려를 나타낸 말
2. 노름쟁이 뒤랑 대여주곡 먹는 놈 뒤랑 대지 말라(도박꾼의 밀친은 대주더라도 먹어치우기를 잘하는 사람의 뒤는 대주지 말라는 속담이다. -곧 도박꾼은 돈을 잃다가도 딸 때가 있어서 이르는 말
3. 니빨이 옥쇠된 사름광은 벗도 흐지 말라(이가 안으로 구부러진 사람과는 친구도 삼지 말라-그런 사람은 욕심이 많고 당차서 벗을 삼게 되면 모든 일이 실패)
4. 니빨을 빼민 “새 니랑 돌아오곡, 묵은 니랑 돌아가라”(齒에도 그 靈이 있어서 괘시를 하게 되면 어떠한 조화를 부리게 된다는 속신에서 이르는 말)
5. 되광 말광 푸는첸 옅으지 아니한다.(되와 말과 키는 옅어 놓지 않는다-이것을 옅어놓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한다. 요는 먹을 것이 없으면 곡물을 마련하는 기물을 옅어놓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 집이 망해가는 근본임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6. 땀수건을 선사흐민 그 사름광 눈물로 이빨흐다(손수건을 선사하면 그 사람과 이별한다)
7. 상제가 삼년상을 냉기기 전이 누케광 장난을 흐명 머리 심엉 등기민 안 된다(상주가 삼년상을 넘기기 전에 누구와 장난을 하면서 머리를 잡아당기면 안된다.-상주의 머리에는 부모의 영혼이 서려 있다는 믿음에 근거)
8. 소두경광 시린 주곡 말으곡 흐민 소도리난다.(술뚜경과 시루는 주고받고 하면 쏘개질난다 술뚜경과 시루는 뜨겁고 위험한 물건이라는 데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떨어뜨려 상처를 입힌다거나 하는 따위로 싸움이 벌어진다는 뜻에서)

9. 손이 산 때 불난 집은 좋곡, 손이 눈 대 불난 집은 망훈다.
10. 시숫물을 놔광 곱이 씨민 싸움훈다.(세숫물을 남과 같이 쓰면 싸움난다.)
11. 식전이 예즈광 말드툼을 흐나 욱지거릴 흐민 그날 재수 벗어진다.
12. 엄지발가락이 질민 어멍이 몬저 죽곡, 엄지 발가락이 쩌르민 아방이 몬저 죽는다.(엄지발가락이 길면 어머니가 먼저 죽고, 엄지발가락이 짧으면 아버지가 먼저 죽는다.-엄지발가락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발가락이 길고 짧음은 곧 아버지의 수명과 비례한다는 속신에서 이르는 말)
13. 이사할 땐 남죽(또는 '배수기')광 비츠룩은 안 7정간다.(이사할 때는 죽저깨와 빗자루는 안 갖고 간다- 죽저깨는 휘젓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 집안 살림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빗자루는 그 집안의 복을 쓸어 내버리는 일을 한다는 속신)
14. 잔치홀 때 새각시나 새시방 옷에 홰옷광 소개옷은 입지곡 좁옷은 아니 입진다.(결혼할 때 신부나 신랑옷에 홰옷과 솜옷은 입히고 겹옷은 아니 입힌다-겹옷은 안팎으로 친이 겹쳐 있는 관계로 자손이 불어나지 않는다)
15. 잔칫 때 호박국광 매역국은 안 끓인다.(결혼 때 호박국과 미역국은 아니 끓인다- 결혼하는 날에 호박국과 미역국을 끓여 먹게 되면 신혼부부의 살림이 분산된다- 호박은 내뒥구는 것이요, 미역은 헤엄쳐 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이유)
16. 질컬음 걸당 원착 발 차민 머정 좋곡, ㄴ단착 발 차민
17. 칼광 수건은 봉그지 아니훈다.(칼과 수건은 좁지 아니한다.- 칼은 무엇이든 썰어서 자르는 것이니 재수 없고, 수건은 머리 위에 쓰는 것으로서 주으면 그 사람이 병들게 된다는 속신)
18. 콧대 오근 사름광 질컬음도 말라(콧대가 구부러진 사람과는 길 걸음도 같이 걷지 말라-콧대가 꾸부러진 이는 마음씨도 콧대처럼 꾸부러져서 이중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속신)
19. 아들 나민 올래에 솟기 매영 솟광 고치 시겔 드라 매여사 훈다.(아들을 낳으면 "정"(의문)에 새끼줄을 배고 거기에 솟과 고추 세 개를 매달아야 한다.)
20. 애길 낳민 죽곡, 낳민 죽고, 흐는 집인 애기 잘 키우는 집의 애기어멍 속옷

을 빌어당, 그 속옷을 트딩 애기 저구릴 호영 입지민 그 애긴 잘 크다.(아기를 낳으면 죽고 죽고 하는 집에서는 아기를 잘 키우는 집의 어머니 속옷(일명 '소중기')을 얻어다가 그것으로 아기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면 그 아기는 잘 자란다.

21. 식게 때 조왕 걸명엔 바룻괴기광 고사린 아니 툃다 논다.(제사때 조왕할머니께 바치는 걸명(승냥에 제물을 고루 떼어 모은 잡식의 일종)에는 바닷고기와 고사리 탕쉬는 놓지 않는다-무속신화에서 조왕할머니의 입장에서 물과 불은 상극적 관계를 뜻한다.
22. 코시호는 집이 개괴기광 몰괴기 먹은 사름이 가민 부정탄다.(고사 지내는 집에 개고기나 말고기를 먹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부정탄다-정성 드리는 제사와 관련하여 사람이 먹어서 꺼리는 음식으로는 “개고기”와 “말고기”를 든다.
23. 거민 낮전이 이녁 우터 오르민 그날 스망일곡,
24. 쇠막쉬 질루는 집인 배경목낭광 몽쿠실낭근 불짓지 아니한다.(소와 말을 기르는 집에는 포플러와 멸구슬나무는 불 때지 아니한다)
25. 함문몰광 목카니 질루민 해롭다.(함문말과 목카니 기르면 해롭다-함문말은 흰 줄기가 이마에서 입술까지 뻗친 말이요, 목카니란 목에 흰 점이 박힌 말이다.-이러한 말들은 순탄치 못하다.)
26. 꿈에 강개호곡 북착테레 걸어가 뵈민 그 사름은 죽은다.(꿈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하고 북쪽으로 걸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다-꿈속에서 강씨는 곧 저승의 강림차사를 상징한다는 속신에서다. 또한 북쪽의 단명의 신의 영역이라는 데서 강씨하고 함께 북쪽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강림차사와 함께 저승길로 인도되어 가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27. 꿈에 검은 물색광 푸린 물색을 시꾸우민 병이 든다.(꿈에 검은 염색과 푸른 염색이 비치면 병이 든다-남자의 수의 색깔은 흰 것이지만 여자의 수의 색깔은 푸른색이라는 데서)
28. 꿈에 놈의 예즈광 밤자리에 혼디 자 뵈민 병든다.(꿈에 남의 여자와 함께 자면

병이 든다- 꿈에서의 남의 여자 관계는 불길하다는 속신에서 이르는 말)

29. 꿈에 돛피기광 쇠피길 먹어보민 곳불에 걸린다.(꿈에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먹으면 감기에 걸린다- 감기 귀신은 기름기 많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0. 꿈에 머리턱광 수염이 빠져보민 즈손에 근심이 생긴다.(꿈에 머리카락과 수염이 빠지면 자손에 근심이 생긴다-머리카락과 수염은 자손으로 연관된다.)
31. 호충에 꺼린 사람은 입관할 때광 하관할 때 보민 직스한다(호충(상극)에 꺼린 사람은 입관할 때와 하관할 때 보면 즉사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택일을 해보면 그 망인의 띠와 상극관계에 있는 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일컬음)
32. 백장 펜광 솔 건 펜데렌 머리 돌리지 아니한다.(벽장 쪽과 부엌 쪽으로는 머리를 향하지 아니한다.-이는 곧 벽장쪽은 막혀 있는 곳이요, 부엌 쪽은 불 때는 쪽으로서 그러한 곳으로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 막히고 불타는 격이라 불길하다는 속신에서 이르는 말)
33. 산잇 돌이 문 몰아지곡 낭기 문 썰어지민 시상이 개판된다.(산의 돌이 모두 허물어지고 나무가 모두 쓰러지면 세상이 개판된다.)
34. 성제광 예비아들은 혼 배에 타지 말라(형제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배에 타지 말라 - 집안 대가 그 사람광 이 사람광 누계가 나신고?(그 사람과 이 사람 중누구가 나온가?)
35. 열레기광 창빗광 어느 것으로 사카마썸?(머리빗과 참빗중)
36. 팔광 정갱이광 안 쭈신디가 어신게
37. 꼬딱 오몽혈 수 어신디 서방이렌 현 놨은 무사 정 껍껍 워심광!(신세 한탄조의 사설)
38. 생긴 것광 허는 짓광 똑 지 애비 닳아신게!
39. 강이광 보말도 집은 싯나.(계와 고동도 집은 있다)
40. ㄱ슬 하늘광 재세 어명은 검어도 좋다.(가을 하늘과 본 부인은 검어도 좋다)

41. 놈이 집광 관장실인 케는 밥도 두영 간다.(남의 집과 관청살이는 끓는 밥도 두고 간다)
42. 놈이 첩광 소나엿 브름은 소린 나도 살을 메 엇나.(남의 덩과 소나무에 바람은 소리는 나도 살 도리가 없다.)
43. 도고 높은 집광 사돈 말라.(문턱 높은 집과는 사돈 말라)
44. 마라도 모기광 용수 모긴 사돈한다.(마라도 모기와 용수 모기는 사돈한다; 혼인 상대가 어지간하면 통혼해야 함을 빗됨)
45. 물왓광 빌레왓은 작제 엇나.(물밭과 돌밭은 시세 없다.)
46. 브, ㅇ스광 애기 어명은 그물수록 좋다.(봉사와 어명은 (날이)가물수록 좋다; 봉사는 날이 좋아야 행동하기가 좋고, 아기 있는 어머니는 아기 빨랫감 때문에 생긴 말)
47. 비바리광 생부릉인 쓸티 써 봐사 안다.
48. 사름광 므썬 둔갈라지민 안된다.(사람광 마소는 무리를 갈라놓으면 안 된다.)
48. 사름 오장광 부릉이 오장은 뱃속에서 그렁 난다.(사람 오장과 부록소 오장은 뱃속에서 정해진다; 됴됨이는 천부적이다)
49. 서방광 각썬 갈라사민 놈놈이다.(서방과 각시는 헤어지면 남남이다.)
50. 송스다리광 몽니다린 우던으로 간다.(송사쟁이와 몽니(심술)쟁이는 종내기로 간다.)
51. 어명 그트곡 아방 뜨난 것광, 어명 뜨난곡 아방 그튼 건 맛사지 못한다.(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것과 어머니 다르고 아버지 같은 것은 맞서지 못한다.)
52. 엇은 활엽광 이신 조그랍은 맛사지 못한다.(엷는 활엽가 있는 인색은 맞서지 못한다.; 가진 자가 삶을 주도해서 우위를 차지할 때 하는 말이다.)
53. 장항광 어린아인 실려야 좋다.(장독과 어린아이는 시려야 좋다; 자식 과잉보호를 할 때 쓰는 말)
54. 점광 놈이 각썬 할 때뿐 돌아사민 헤심심한다.(점과 남이 아니는 할 때뿐 돌아서면 심심하다.; 점과 외도의 허무성을 꼬집음)

55. 쨍(쨍)이광 지다린(오룬) 들 굶 날 굶이 잇나.(쥐와 오소리는 들 구멍 날 구멍 이 있다.)
56. 지넝이광 버랭이 나당 버쳐사 여즈(저)로 난다.(지네와 벌레 낳다가 부쳐야 여자로 낳는다.)
57. 집줄 쪼르게 놓는 사람광 사돈 말라.(집줄을 짧게 놓는 사람하고는 사돈을 하지 말라; 앞뒤를 헤아리지 못하는 웅졸한 사람을 일컬을 때)
58. 어멍광 아방이 뭐 햅수광?
59. 이것광 저것광 어떤 것이 나수광?
60. 이거 누가 봐난 책이광?
61. 집광 머우광?
63. 밥광 떡광 어느게 조니?(밥과 떡중에 어느 것이 좋니?)
64. 그 사름광 ㄹ트냐?(그 사람과 같더냐?)
65. 아방광 어멍광 싸웁수다.(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계십니다.)
67. 그 과부가 이밤광 저밤새에 간 만남 온다.(그 과부가 이 밤과 저 밤 사이에서 만나고 온다)
68. 나광 훈디 아이 살다?(나하고 함께 아니 살겠냐?)
69. 야의광 가의는 닭앗저.(이 아이와 그 아이는 닭았다.)
70. 집줄 쫄로게 놓는 사람광 사돈 말라.(지붕 줄 짧게 놓는 사람과는 사돈 하지 말라)
71. 바, 〇사광 애기 어멍은 ㄹ물수록 좋다.(장님과 아기 어머니는 날이 좋아야 좋다.)
72. 니광 나광 ㄹ찌허게.(너와 나와 같이 하자)
73. 이빨이 옥쇠된 사름광은 벗도 흐지 말라.(이빨이 구부러진 사람과는 친구조차 하지 말라)
74. 솔두경광 시린 주곡 말으곡 흐민 소도리난다.(솔두경과 시루는 주고받고 하던 은 소문이 난다.)
75. 시숫물을 놉광 곶이 쓰민 싸움흐다.(세숫물을 남과 같이 사용하면 싸울 수 있다.)

76. 나광 고찌 가게.(나와 함께 가자.)
77. 나광 가젠?(나와 갈래?)
78. 그 아즈망은 서방광 장에 갔저.(그 아줌마는 남편과 시장에 갔다.)
79. 그 집의 할망광 메뉴리가 훈디 살암저.(그 집에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다.)
80. 이 식개떡 할망광 훈디 먹읍서.(이 제사떡 할머니와 함께 드세요.)
81. 난 국어광 수학을 좋아햐수다.
82. 너광은 내가 낫어야.(너보다는 내가 낫다.)
83. 가이광은 비교도 안 되게 크주.(그 아이와는 비교도 안되게 크다.)
84. 아방광은 고찌 꼴양사 되어.(아버지와는 같이 비교해서 안 된다.: 아버지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함을 이룰 때 쓴다.)
85. 어멍광 경허민 되어.(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면 되나.)
86. 동생광 경허민 되나.(동생에게 그렇게 하면 되나.)
87. 어멍이 먼저 알아가지고 아들광 전달을 허여 불엇저(어머니가 먼저 알아서 아들에게 전달하였다.)
88. 삼촌광 의논햐주.(삼촌에게 의논해봅시다.)
89. 영희는 밥광 군것질을 좋아햐저.(영희는 밥과 군것질을 좋아한다.)
90. 떡광 밥광 국광 햐영 먹었다.(떡과 밥과 국과 많이 먹었다.)
91. 아방은 어멍광 사이가 좋수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습니다.)
92. 성은 아시광 지레가 톳등하다.(형과 동생은 키가 똑 같다.)
93. 철수는 국광 밥광 출래를 다 먹엇저.(철수는 국과 밥과 반찬을 다 먹었다.)
94. 그 집 아들은 아방광 대들엇젠 햐저.(그 집 아들은 아버지께 대들었다고 한다.)
95. 자인 지레 커부난 문지방광 박앗저.(저 아이는 키가 크기 때문에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혔다.)
96. 아신 지레가 족아부난 문지방광 박을 일이 었저.(동생은 키가 작기 때문에 문지방에 머리 박을 일이 없다.)
97. 발이 신발광 안 맞암저.(발이 신발에 안 맞는다.)
98. 어멍광 아방광 싸웁수다.
99. 산광 바당광 어디가 좋수광?

100. 너광 나광 ㄴ찌 가겐 햐져.
101. 성광 아시광 ㄷ도는 것광.
102. 자인 무사 저추록 께께 워광.(저 아이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라바락 소리를 지르고 있는고.)
103. 오늘 따라 낮이 날씨는 무사 더웁광.(오늘 따라 낮 날씨는 왜 그렇게 더운고)
104. 니 형은 삭삭 바쁘디 ㄴ실 감광.
105. 지 몸도 성치 안으디 밭에 일을 ㅎ젠 흙광.(자기 몸도 건강하지 못하면서 밭에 일을 하려고 하고.)
106. 날은 새벽에 일어나사 되는데 잠은 무사 영 안 옴광.(내일은 새벽에 일어나 하는데 잠은 왜 이렇게 안 오는고.)
107. 자이 곤웃광 보기 좋은게.(저 애는 고운 웃 입은 것이 보기 좋다.)
108. 자이 입은 것광 저 꼴 보라.(저 애는 입은 옷 모양과 저 모습을 보라)
109. 그 집 주변광 어떻힐 수가 어신디.(그 집 주변(환경)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10. 저 집 딸은 가슴속에 바람광 ㄴ득헛저.(저 집 딸은 가슴속에 바람이 가득 차다.)
111. 그 삼촌은 지레광 양지광 쫄락허다.(그 삼촌은 키와 얼굴이 길다.)
112. 잘 ㅎ젠 허는 ㄴ슴광 보라.(잘 해 보려는 마음을 보라.)
113.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광 입엇저.(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다.)
114. 게역을 물광 타먹엇저.(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먹었다.)
115. 게역광 물을 타먹엇저.(미숫가루에 물을 타서 먹었다.)
116. 자인 지레 커부난 문지방광 박앗저.(저 아이는 키가 크기 때문에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혔다.)
117. 아신 지레가 족아부난 문지방광 박을 일이 었저.(동생은 키가 작기 때문에 문지방에 머리 박을 일이 없다.)
118. 밭이 신밭광 안 맞암저.(밭이 신밭에 안 맞는다.)
119. 그 일 끝난 게 아마도 오후 세시광 네시 새여.(그 일 끝난 것이 아마도 오후 3시에서 4시쯤이다.)

120. 보릿고개 당시광 비하민 지금은 얼마나 좋은 때라.(보리 고개 당시(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은 때냐.)
121. 태풍이 오늘 저녁 무렵광 널 아칙꼬진 불켄헤라.(태풍이 오늘 저녁 무렵에서 내일 아침까지는 불췌다고 한다.)
122. 므슬 강왕 보난 시킴한 내(煙)가 정재광 구들광 ㄱ득해서라.(놀러 갔다와서 보니까 검은 연기가 부엌과 방에 가득 차 있었다.)
123. 그 집 아들은 아방광 대들엇젠 험저.(그 집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고 한다.)
124. 버드낭광 쉽사리론 불습으민 므쉬에 손해본다.(버드나무와 대싸리로 불 때면 말이나 소에 손해를 본다.)

